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973호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대한민국 중심 도약 '디딤돌' 놓는다

충남도, 민선7기 첫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도민 행복 위해 역량 집중"

충남도가 민선7기 2년차인 올해 도민 행복과 대한민국 중심 도약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해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등 각종 복지 정책을 보완 · 발전시키고, 경제 문제에 집중해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남궁영 · 나소열 행정 · 문화체육부지사, 실 · 국 · 원 · 본부장, 도 공공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분야별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8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조성 △안면도 관광지 개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더 행복한 주택 공급 △밀원수 확대 조성 △KBS충남방송국 설립 등은 10대 현안사업 및 당면사항으로 정하고,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실 · 국 · 원 · 본부별 주요 업무를 보면, 기획조정실은 미래 프로젝트 발굴과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대, 무상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등을, 자치행정국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모델 구축,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재난안전실은 재난 대비 보험 가입 활성화, 스마트 하천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소방본부는 재난 현장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소방력 보강 및 인프라 개선 등을 주요 업무로 제시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충남형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 및 기반 강화, 인구 감소 대응전략 수립 및 추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안정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역점 추진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개소, 도립미술관 건립,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 등을, 기후환경국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안정적 용수 공급 기반 마련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질 예측진단센터 운영 추진 등에 집중한다.

경제통상실은 지역 수요 반영 일자리 제공 기반 구축,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 · 창업 지원 강화 등을, 미래산업국은 천안아산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등을 주요 업무로 잡았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국은 스마트팜 등 미래 농산업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농업기술원은 ICT활용 미래형 스마트 농업 선도, 귀농 · 귀촌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건설교통국은 SOC 확충 기반 구축 등을, 해양수산국은 해양치유 · 휴양단지 조성 기반 구축, 환황해 물류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새로운 도정이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고 민선7기 2년차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단단한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은 220만 도민과 공직자,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힘찬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가 토대를 닦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천과 성과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다. 지난해 세운 도정 비전과 각 분야 과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정착시켜 나아가야 한다"며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목표로 민선7기 실질적인 원년인 2019년을 도민 행복으로 채워가자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올해 특히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부남호 역간척 △안면도 관광지 개발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더 행복한 주택 공급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남도는 올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선도적인 노력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라며 "상반기, 각 실 · 국 · 원에서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양극화 대책과 지역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산업 전략 마련과 혁신성장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구 기자

서산시 관내 농협 조합장 성추행 파문

A 여직원 차량에 번개탄피워 자살시도

조합장 횡령 조사 받자 물 타기 주장

지난해 12월 7일 서산의 한 농협 A여직원이 조합장에게 너무나 치욕스럽고 더러운 일을 당했다며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차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알려지면 파장이 일고 있다.

A여직원은 유서에서 성추행 당한 것이 남편과 애들이 알면 받을 충격과 상처가 너무 겁나서 끓어오르는 수치심과 분노를 참느라 죽도록 힘들었고 성추행 가해자인 조합장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치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조합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부당한 인사 조치와 업무분장으로 인한 억울함과 성추행으로 인한 수치심으로 인한 우울증을 참기가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 했다.

성추행 당했다는 치부를 알고 있는 간부 아무개는 우수 직원으로 표창까지 받은 나를 두고 농협 조직에 맞지 않는 성향 같으니 그만두고 나가서 개인 사업이나 하라고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A여직원은 심한 분노와 억울함에 벗어나기 위해선 죽음 뿐이라는 극단적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먼저 가는 엄가가 정말 미안하다고 한 유서를 남겼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자살 미수에 거친 A 여직원은 조합장으로부터 3차례에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11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A여직원에 따르면 2015년 4월에서 6월경 오후 3시쯤 조합장실에서 상무까지 승진해야지 하면서 손으로 볼을 잡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A여직원을 따라와 볼에 입을 맞추는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9월에서 11월사이 오후 9시 30분경 조합장이 애경사 봉투와 서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서산의료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두드리자 조수석에 타라고 문을 열어주기에 차에 타자 서류를 주려는 순간 강제로 껴안았다고 증언했다.

2016년 평일에 근무 중인 A여직원에게 전화로 00영양 굴 밥집으로 법인카드를 가져오라고 불러내 친구 3명이 함께한 자리에 술을 따르라고 강요해 술을 따르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장이 주말에 전화해 저녁식사를 같이하자 어디냐고 물어 볼 때는 집안에 애경사 핑계로 만남을 피해왔다고 전했다.

A여직원 남편에 따르면 조합장을 피하자 2017년 여성 복직인 아내 의사와 관계없이 일반관리직의 업무인 예금계원 업무를 맡겨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아 1년 휴직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것을 보면 조합지시에 따르지 않아 인사 보복을 당한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B조합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성추행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으며 A여직원이 횡령 혐의로 도지부에서 조사를 받자 물 타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A여직원이 2017년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후 1년 휴직을 요청한 것을 잘 알지도 못했고 휴직을 요청한 것도 이번 사건이 터진 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당했다는 A여직원의 주장과 회령혐의로 조사를 받자 물 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조합과 팽팽한 주장은 사법 당국이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이다.

서산 =김정한기자

대전형 복지 브랜드 '함께해U' 개발

대전시, 민선 7기 대전형 복지서비스 의미 담아

대전시가 민선 7기 복지비전과 가치를 담은 복지 브랜드 '함께해U'를 개발했다.

'함께해U'는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민선 7기 복지서비스의 핵심가치를 '함께'로 표현했고, 'U'는 You를 웃는 얼굴로 형상화해 복지대상자인 시민과 함께(with you)해서 행복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각 로고의 디자인에는 대전형 복지서비스가 지향하는 목표, 가치, 실천전략의 의미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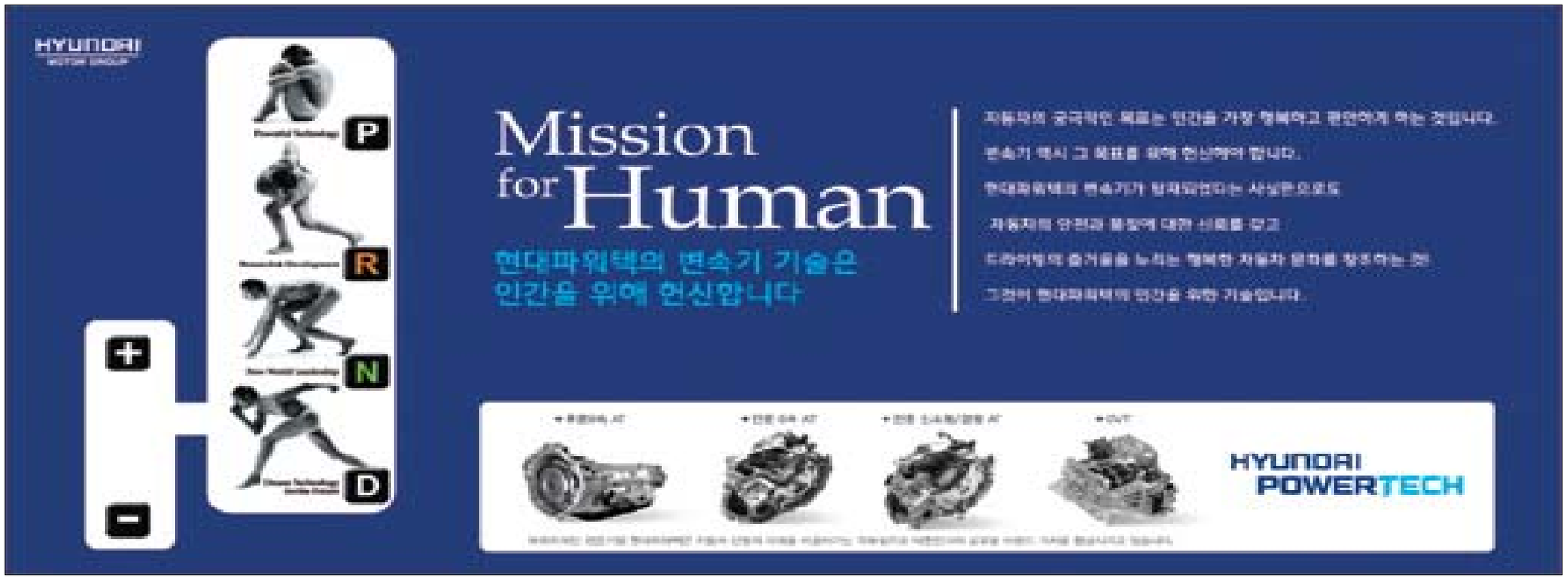
대전시는 이번에 개발한 브랜드를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에 배포해 복지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적극 활용하고, 상표등록도 추진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를 공공 및 민간에서 공유하고, 대외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 브랜드를 개발했다"며 "대전시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전형 지역복지 안전망 함께해U

한편, 대전시는 이번 복지브랜드 개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 복지업무 종사자 및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선호조사 등을 진행했다.

김태선 기자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학생건강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발의

충남도의회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담겨 있다.

또한, 각 학교가 미세먼지 예보단계별(좋음·보통·나쁨), 경보단계별(주의보·경보) 조치사항에 따라 실외수업 단축·자제 등 명시된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스쿨존 교통사고 없앤다

거리행진과 홍보활동 등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제2대 아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장 박예진·배방고 3학년)가 스쿨존 교통사고 ZERO(제로)를 위해 나섰다고 14일 전했다.

지난 13일 어린이·청소년의원,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유해환경감시단, 아산경찰서,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거리행진과 홍보활동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아산시청에서 관광호텔사거리까지 스쿨존 교통안전 홍보물품 배부와 함께 스쿨존 규정준수를 알리면서 행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어린이?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추진 활동이다.

박예진 의장은"어린이?청소년의회의 시각에서 지역사회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상정?가결한 안건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9년에도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해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육동일 위원장, 해외봉사활동에서 숨진 건양대 학생 분향소 찾아 조문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육동일 위원장과 당직자들은 14일 건양대를 방문해 캄보디아 봉사활동에서 숨진 학생들의 분향소를 찾았다. 참석자들은 이날 건양대 의료공과대학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학생들을 추모하며, "안타까운 젊은 영혼들의 명복을 빌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소서"라고, 애도의 뜻을 밝히며 숨진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이날 조문에는 육동일 시당위원장과 이활 사무처장, 박희조 수석대변인, 한동권 디지털정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배재대, 대학 발전 견인할 정책·아이디어 공모

배재대(총장 김영호)가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배재대학교 제8대 총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15~25일 'New START 배재'를 위한 제언 및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3월 제8대 배재대학교 총장 취임에 맞춰 발전상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재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역 친화대학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고등교육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할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배재대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재학생·졸업생·교직원은 물론 기업체 관계자와 학부모, 지역민도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분야는 ▲대학혁신 ▲학제 및 조직 ▲전공 및 교양교육 ▲IT시스템 ▲대외협력 ▲산학협력 등이다. 평가 및 선정은 제8대 총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가 진행한다.

최우수 당선작은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접수는 이메일(newstart@pcu.ac.kr)로 진행되며 제안서 쪽수 제한은 없다.

배재대는 당선작 아이디어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설치

체육계 성폭력 실태 점검·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

바른미래당은 14일 최근 '심석희 선수 성폭력 피해사건' 등 체육계 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성범죄와 폭력이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장에는 권은희 전국여성위원장과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위원은 총 4명으로, 신용현 의원, 김삼화 의원, 이동섭 의원, 임재훈 의원이 임명되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선수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강구와 입법 보완책 마련 등 국회 차원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성범죄와 폭력이 없는 깨끗한 체육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치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보여준 심석희 선수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향후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가로 원외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국회=김성구기자

조합장 선거 대비 설 명절 위법 행위 특별 단속 돌입

공주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의 조직적 금품제공 등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용)는 설 명절을 전후해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의 조직적인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조합장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정 등을 방문면담 하고, 지속적으로 조합 총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주력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이 최고 3억원이 지급되고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의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며 "설 연휴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041-852-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자유한국당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 철저한 검증 필요"

민주평화당, 정상적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

민주평화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들에 대해 5.18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가를 따져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5.18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으나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추천된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도 5.18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며 "지만원이나 5.18진압군 지휘관을 추천하려다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내놓은 대안 치고는 5.18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에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개사과 요구를 받은 인사가 포함됐는가 하면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특조위원으로 유족들로부터 고의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인사가 포함됐다"묘 "이들이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과연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특히 이들 추천된 인사들의 경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5.18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이해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온갖 가짜뉴스와 반5.18집단의 은폐 시도로 지난 38년 세월 동안 가려져왔다"며 "이제 5.18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역사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국회=강철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바른미래당 홍성·예산군 지역위원장에 김석현 임명

실력 갖춘 30대 젊은 인재…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실천정당 표방

바른미래당은 충남 홍성·예산 지역위원장'에 김석현 前홍성·예산 공동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석현 신임 위원장 임명은 87년생으로 바른미래당의 중도개혁 이미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혁신적이고 실력을 갖춘 젊은 인재를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의 실천정당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현 지역위원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홍성·예산의 젊은 지역위원장으로서 연일 지원군으로 가세해 후보자들의 지원유세에 나서며 총력전을 펼치며 행보를 이어 나갔다.

김석현 지역위원장은 ROTC 48기(육군 대위) 출신으로서 바른미래당 충청남도당 대변인, 정책홍보단 부단장,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 등의 정당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정책적·행정적 실무능력과 정무감각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행정학 박사 연구생으로서 지역 현안과 밀접한 정책적 내용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김석현 지역위원장은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알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그리고 정도의 정치를 위해 활력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홍성·예산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국회=김성구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 개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1월 16일 충남 계룡시 두마면사무소에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상설명회는 사업추진 관련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문 사항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현황 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참석자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 보상규모는 모두 117필지로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11필지, 왕대리 1필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필지 등이며,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착공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717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까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서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잇는 총 8.5㎞의 4차로 도로를 신설된다.

박봉관기자

카메라 속보

천안 라마다호텔 대형 화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라마다호텔에서 17시20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중이며, 일봉산사거리의 교통량이 급증하는데다 퇴근시간까지 겹쳐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는 이와 관련한 재난 문자를 17시 28분경 천안시민에게 발송했다.

충남도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道, 농협은행과 '금융 지원 협약'… 충남신보에 20억 특별출연

충남도와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가 소기업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조두식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충청남도 소기업 ·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영 안정 금융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보증요율은 0.2% 인하한다.

도는 소기업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금에 대해 2.0~2.5%까지 이자 보전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자영업자) 1200여 곳이 금융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장기 불황으로 소기업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농협은행의 특별출연은 소기업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도는 앞으로도 소기업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힘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소기업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소상공기업과와 자영업지원팀을 신설 · 운영 중이다.

또 올해 소기업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규 금융 보증은 지난해보다 100억 원을 늘려 총 1300억여 원을 지원한다.

김성구 기자

사회복지서비스 확대기금 쾌척

삼성전자 TSP총괄, 4억8750여 만원

삼성전자 TSP총괄(상무 김보현)은 아산시(시장 오세현)를 방문해 관내 12개 사회복지기관이 추진하는 '2019년 우수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노인치매예방 스마트센터 설치'를 위한 기금 4억8750여 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우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총 18개이며 삼성전자 TSP총괄 사원 봉사활동 연계 프로그램과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아동 · 청소년, 다문화, 노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지원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보면 △아동 · 청소년복지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체육교실 '튼튼꿈나무', 숲 생태놀이 프로젝트', 청소년을 위한 '해피드림 밴드부 동아리 지원', '농촌지역 청소년 공부방 지원'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논(non) 프로젝트', 글로벌 패밀리 '아산시 다문화 프로젝트', 신창면 맞춤형 다문화 프로젝트 '찾아가는 언어교실과 방과 후 돌봄 나눔교실'이다.

또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은빛청춘들의 문화예술이야기 '내 나이가 어때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정한 웰라이프 건강 더하기+', 주거환경개선사업 '북극성 도배장판서비스', 식사지원 프로그램 '아름다운 밥상', '행복나눔 생신잔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으로 지체장애인 휠체어농구 '아산휠스파워농구단', 지적장애인 체육활동 및 직업재활 지원 프로그램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노인치매예방 스마트센터 설치' 등이며 관내 사회복지기관 12개소, 18개 프로그램에 기금이 전달된다.

전달된 기금은 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신혜종 위원장),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관형 회장)가 함께 모니터링과 평가해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리량주기자

대전시, 청소년 안전모니터단과 안전문화운동 협업추진

학교주변 안전생활 위한 안전신문고 교육 및 캠페인 실시

12일 오전 대전청소년안전모니터봉사단(U-SAFE)(단장 임미숙)은 대전 중앙고등학교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안전생활에 관한 교육을 받고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점검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대전 중앙고등학교 홍재견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60명이 참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이영미 주무관이 안전신문고 추진방향과 활동방법을 설명하였다.

또 대전광역시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팀장 최훈락)과 안전모니터봉사단 대전시연합회(강희조 회장)이 참석하여 안전문화 활동 행사를 격려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안전모니터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사례 발표가 있었다.

대전광역시에서 안전신문고 실적우수자로 인정받은 이아로 군(18세)이 직접 발견한 위험요소와 조치 결과를 설명하여 참석 학생과 관계자로부터 많은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대전청소년안전모니터봉사단 학생회장인 최웅군(19세)은 "학교 주변환경이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자"고 말했다.

안전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대전 중촌동 일대에서 안전문화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이영미 주무관이 안전신문고 추진방향과 활동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농어촌公 충남본부 신입사원 근무배치

소속감 · 자긍심 고취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필)는 14일 충남지역본부 신입사원 49명을 근무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필 충남지역본부 본부장은 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신입사원들에게 공사 배지와 장미꽃을 전달하였다. 이는 첫 출발을 하는 신입사원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신입사원들은 각 근무지로 배치되어 농어촌공사의 일원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김종필 본부장은 신입사원들에게 "우리 공사는 110년이라는 시간동안 농어촌발전을 위해 기술과 경험을 쌓으며 힘써 왔다.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100년을 위해 열정과 패기로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체 신입사원 373명은 1월 11일까지 2주간의 입문교육을 받고 14일 각 지역별로 배치되었다.

김태선 기자

박용규 논산시 체육회 사무국장 임용

시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 · 체육기량 배양 · 투명경영 강조

지난 1월 3일자로 논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에 임용된 박용규(62) 국장은 취임 일성으로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논산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한 이후 충남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 경기에 출전한 성적이 부진한데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또한 별무성과라는 시민사회의 따거운 시선이 있는데다 지난해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 운영과 관련, 이런 저런 일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음직 한 대답이다.

박용규 국장은 그러나 희망을 갖는다고 했다. 우선 관내 채육계 원로를 비롯한 산하 종목별 경기단체 임직원 및 생활체육 관계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당면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무엇보다도 투명한 경영을 통해 실추된 논산시 체육회의 위상을 바로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체육회가 주관하는 각급 행사 운용에 있어서도 보여주기식 허울과 군더더기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오로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그와 함께 전 경기 종목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해 나갈 각오임을 거듭 밝혔다.

논산 토박이로 반월초교, 논산중, 논산공고를 졸업하고 공직에 투신, 사무관에 승진한 후에는 취암 · 부창동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00세 행복과장을 끝으로 퇴임한 박용규 국장은 공직생활에 몸담아 오면서 투철한 자기관리로 주변의 신망을 받아왔고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몸사리지 않는 강한 추진력으로그의 체육회 사무국장 기용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크다.

박용규 국장의 오랜 고향선배인 강신용 원로체육인 그룹 회장은 그만한 역량이라면 체육계 인사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논산시 채육회의 바람직한 새 지평을 열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의 사무국장 취임을 축하 하기도 했다.

2019 겨울공주 군밤축제 홍보에 주력

정안알밤휴게소에서 관광객 대상 군밤축제 알리기에 나서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2019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람객 유치를 위해 군밤축제 알리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정안알밤휴게소(하행선)에서 손권배 부시장을 비롯해 시청 관광과 직원, 공주시관광협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공주 군밤축제 게릴라 홍보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알리는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휴게소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다트게임 등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2019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불타는 밤! 뜨거운 공주!'라는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주 고마일원에서 개최된다.

공주의 대표 특산물인 '밤'과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는 '불'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는데, 따뜻한 불에 밤을 구워먹는 군밤체험을 비롯해 군밤피자와 군밤삽겹살을 맛볼 수 있는 대형화덕체험과 군고구마통구이체험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군밤음식체험 등 알밤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또한, 아이스카빙, 군밤놀이터, 알밤민속놀이 한마당, 군밤눈사람 등 즐길거리와 지역예술인 공연, 비보이 공연, 추억의 음악회, 모닥불캠프파이어, 사물놀이 등의 공연이 풍성하게 준비된다.

조관행 관광과장은 "군밤축제를 통해 공주에서만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추운 겨울, 뜨거운 공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 =정상범 기자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1603

●동 정●●●

설명절 지원금 전달식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15일 오후 3시 대전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명절 지원금 전달식에 참석.

제6차 구청장 협의회 간담회

황인호 동구청장 = 15일 낮 12시 대흥동 소재 음식점에서 열리는 제6차 구청장 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구청장협의회 오찬간담회

박용갑 중구청장 = 15일 낮 12시 대흥동 월산본가에서 열리는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오찬간담회' 참석.

구청장협의회 간담회

장종태 서구청장 = 15일 오후 12시 중구 월산본가에서 열리는 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원신흥동 연두방문

정용래 유성구청장 = 14일 오전 10시 원신흥동을 연두방문.

대덕구 사업설명회

박정현 대덕구청장 = 15일 오후 2시 대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19년 알아두면 쓸데 있는 대덕구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년구정소개와 주민소통 시간을 갖는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허 시장, '2020 국비 확보 전략적 추진 방안' 중점 논의

단기 국비확보 탈피 중장기 계획 설계해야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간업무회의는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핵심 토론 과제로 '2020 국비 확보 전략적 추진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이젠 다음 해 국비확보에 주력하던 것에서 탈피해 이후 년도 사업까지 바라보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미리 국비확보 계획을 설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지시했다.

특히 허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관련 부처와 국회를 자주 찾아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 된다"며 "작년 국비확보 성공을 발판 삼아 올해도 실국장이 모든 현장을 마크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허 시장은 기획조정실의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특보 및 자문관 효율적 활용을 거듭 당부했다.

허 시장은 "이는 정책 결정이 보다 시스템적으로 진행되도록 기획조정실이 조정관리 역할을 해 실국간 협력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라며 "또 정책자문관과 각 특보는 공직자가 소화하기 어려운 일을 지원하는 자리인 만큼 사전단계부터 잘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 독립운동사를 잘 정립할 것을 지시했다.

허 시장은 "단재 신채호, 인동장터 만세운동, 3·8 민주의거 등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활동을 기념하는 한 해를 만들도록 잘 기획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허 시장은 미세먼지 악화에 따른 공직자 대중교통 이용, 겨울 가뭄과 산불예방 대응,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김태선 기자

황인호 청장, 17일부터 희망과 소통의 연두방문

발전방향 공유 · 생생한 여론 청취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오는 17일부터 동구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주민의 생생한 여론을 듣고자 2019년 기해년 연두방문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두방문은 새해를 맞아 주민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대전역 선상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과 관광 도시 도약을 위한 동구8경 선정 등 민선7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을 알리고 생생한 주민의 여론을 구정에 적극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연두방문은 형식적인 행사나 절차 등 의전행사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행사는 모범 주민 감사패 전달에 이어 민선7기 주요 구정 발전 방향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상영한 뒤 황인호 구청장이 직접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보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뒤 다과를 나누며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도 갖는다.

황인호 구청장은 "민선7기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연두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23만 구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가치의 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정은 ▲17일 용전동, 신인동, 중앙동 ▲18일 성남동, 대청동, 판암1동 ▲21일 산내동, 판암2동, 용운동 ▲22일 자양동, 효동, 대동 ▲23일 가양1동, 삼성동 ▲24일 가양2동, 홍도동 순으로 진행된다.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서구, 식육 포장처리업소 · 축산물판매 및 유통업소 대상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내달 1일까지 식육 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 및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실시한다.

또한, 설 명절 선물세트가 많은 시기로, 육우 · 젖소, 한우 둔갑 판매, 허위 등급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물 이력제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여 국내산을 판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 포장처리 · 식육판매업의 기한 내 전산신고 이행 여부 확인 및 수입 쇠고기 거래 시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여 · 부, 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확인 등 이력관리에 대한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고발 ·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현장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DNA동일성 검사도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조광휘 상임대표 선출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대전YWCA 4층 대강당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대표로 대전YMCA 조광휘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 날 정기총회는 총 8개단체 30명의 대의원에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성원보고, 서기선출, 회순채택, 전 총회 회의록 보고, 안건심의, 차기상임대표선출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2019년 주요 사업으로 월간 '소비자소식' 발행과 소비자교육, 소비자의 날 행사, 농식품 스마트 소비 아카데미 사업등을 진행한다. 특히 소비자 안전, 소비자 상담, 소비자피해구제, 물자조사 등을 통해 상품의 품질과 가격의 안정과 건전한 소비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전YMCA 조광휘 상임대표는 "앞으로 사무국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단체 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소비자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전YMCA를 비롯해 대전YWCA,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등 8개 단체로 구성되어있으며 단체 간 연대를 통해 지역 소비자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송병배 기자

박용갑 청장 중촌동 화재현장 찾아

관련 직원 격려와 함께 주민피해상황 없는지 점검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14일 오후 중촌동 화재현장을 찾았다.

14일 오전 11시에 최초 화재신고 접수가 들어온 화재현장은 중촌동 471-29번지에 위치한 한 폐기물 업체로, 구는 야적장 재활용품 상부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 현황은 조사 중에 있다. 관할 소방서인 동부소방서에서 출동한 80여명의 소방관과 23대의 소방차, 소방헬기 등이 화재발생 대응1단계에 맞춰 화재를 진화 중에 있다.

박 청장은 현장을 찾아 소방관계자에게 피해상황을 전해 듣고, 현장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의 피해상황이 있는지를 살폈다.

김태선 기자

유성구, 제9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 가져

민 · 관 가교 역할도 병행 방침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에 활동할 '제9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된 블로그 기자단은 총 25명으로 20대에서 40대까지, 대학생부터 회사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또한, 기자단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맛집, 명소 등 다양한 구정 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고, 구민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민 · 관 가교 역할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유성구 개청 30년과 대전방문의해를 맞아 월2회 이상 유성의 특색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집중 취재하여 널리 알릴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그동안 블로그 기자단이 주민의 눈높이에서 좋은 기사를 많이 발굴해 왔다"고 말하며, "올해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유성에 외부인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성의 특별한 매력을 알리는데 적극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9년째를 맞은 유성구 블로그는 유성의 명소와 주요 행사 등 3,300여 건의 다양한 기사가 게시돼 있으며, 누적 방문자 수가 4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에서 관심도가 높다.

박봉관 기자

박정현 구청장 '구청장의 특별서재 이후 100일 만의 만남' 가져

책 통해 주민과 구정철학 공유

박정현 구청장은 14일 대덕구청에서 주민 30여 명과 함께 '구청장의 특별서재 이후 100일 만의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0월 8일 민선7기 출범 100일을 기념해 연 '구청장의 특별서재'에서 추천도서를 대여한 주민 30명과 다시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열독자인 박정현 구청장과 평소 책을 가까이 하는 주민이 함께한 자리인 만큼 책을 읽고 난 후의 소감과 생각을 편안하게 나누며 대덕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교감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주민이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싶은 애독서와 함께 구정에 바라는 제안과 소망을 책갈피에 담아 박 청장에게 전하며 서로의 가치관과 구정철학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 참석 주민은 "평소 책읽기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토론을 하는 자리가 낯설어 처음에는 부담도 됐지만, 구청장님과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며 "앞으로도 솔직하고 편하게 만나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 는 소감을 밝혔다.

박정현 구청장은 "취임 200일을 맞아 책을 매개로 주민과 다시 만나 소통하며 구정철학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만남으로 다시 한 번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과 함께 울고 웃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처음 약속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타 대전공장, 소외 계층 성금 1억 9천만원 기부

"소외된 이웃 돕는데 앞장"

경기 침체로 사랑의온도탑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성금이 도착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지난 11일 대전사랑의열매(회장 안기호)에 소외 계층을 위한 따뜻한 성금 1억 9천만원을 기부했다.

윤정록 공장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경영 실천을 통해 대전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납세의 의무' 권리로 찾아가세요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 지난해 230건 상담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앞장

천안시 거주하는 이재원 씨(가명)는 지난 12월 어김없이 날아든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한숨부터 나왔다.

몇 년 전 삶에 대한 회의로 몹쓸 생각 끝에 자동차에 불을 질러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이다.

그는 이후 다시 희망을 안고 열심히 생업전선에서 꿋꿋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당시 불에 타 전소돼 버린 자동차의 세금은 6월과 12월 꼬박꼬박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

구청 세무과를 찾아 불에 타 없어진 자동차세를 더 이상 안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현행법상으로 말소등록이나 폐차 증명, 도난사실 증명 등 공적인 증명서가 없이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던 중 납세자보호관 홍보 현수막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

천안시 납세자 보호관은 전후 사정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끝에 최종적으로 사실상 소멸된 차량으로 인정받도록 만들어 지난 부과된 세금부터 소급해 비과세 처리했다고 이 씨에게 알려왔다.

천안시는 지난해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세무 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에 배치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요청, 과세관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주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며 지난 8개월 동안 230건의 세무 상담,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등 상담 업무 실적을 올렸다.

박정숙 납세자보호관은 "이 씨의 사례처럼 세법의 복잡성으로 사실상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며 "작은 일이라도 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납세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천안시민 납세자분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명국 예산법무과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세정과 등 부과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에 배치된 것은 부과부서와의 독립성을 강화해 납세자 편에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납세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 당부

당진시,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 세액의 10% 공제

당진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후불제 성격인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월(1월 16일부터 31일까지)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해 ▲3월 연납 시 세액의 7.5% ▲6월 연납 시 세액의 5% ▲9월 연납 시 세액의 2.5%를 공제받는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연 세액의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고 신청만 취소되기 때문에 6월과 12월 정기 부과 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후 타 시 · 군 · 구로 전출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연납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출간 시 · 군 · 구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 세액 일시납부 후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그 이후 날짜만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19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년 네 차례 가능하며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이다.

신청방법은 아산시 세정과로 전화(1577-6611, 041-540-2281)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연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으로 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새로 취득한 차량이나 기존 연납하지 않던 차량은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할 경우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go.kr), 가상 계좌번호 납부(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양봉교육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지난 11일 군내 양봉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시총회와 친환경 양봉 교육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칠갑산꿀농원 이영우 대표는 월동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약제 사용요령을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청양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양봉산업은 초기자본 회수 기간이 짧고 회수율 또한 높아 사육농가 수가 늘고 있으며, 현재 200여 농가에서 연간 1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충우 청양군양봉연구회장은 "양봉농가의 밝은 미래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기술교육과 새 기술 벤치마킹 현장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2018년 사업결산을 하고, 2019년 추진사업과 세부추진계획을 세웠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양봉인구가 늘고 더 많은 꿀을 얻기 위해서는 밀원조성이 시급하다"며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밀원수 심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양군양봉연구회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충우 청양군양봉연구회장(010-5427-7170)에게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성금속, 기해년 황금돼지해 맞아 '돼지 실버바' 출시

순도 999.9% · 1000g의 대성금속 은으로 제작돼 신뢰할 수 있어

"2019년 황금돼지를 실버바로 만나보세요"

국내 금, 은 제품 전문 생산 업체 ㈜대성금속(대표 노윤구)이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해를 맞아 '돼지 실버바'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성금속이 올해 새롭게 선보인 돼지 실버바는 모든 일에 협동과 협심으로 일을 헤쳐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황금돼지 3 마리와 재물, 명예, 승진, 당선 등 경사를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는 산딸기가 조화를 이룬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또한 KRX금시장 공식 생산업체(품질인증기관 한국조폐공사) 및 ISO9001(품질), ISO14001(환경)인증을 받았으며, 순도 999.9%, 1000g의 은으로 제품을 제작해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한다. 실버바 뒷면에는 순도와 중량, 대성금속의 로고 심볼,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에서 인증된 홀마크 있어 더욱 신뢰할 수 있다.

대성금속 관계자는 "올해는 육십간지의 36번째 해로, '기'는 황이므로 '노란 돼지의 해' 즉 황금 돼지로 해석할 수 있는 길운이 깃든 해를 뜻한다"며 "이번 실버바는 우리 안에 갇힌 돼지의 모습이 아닌 자유롭게 뛰어노는 황금돼지를 표현해 재물과 복이 트이는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정교한 디자인으로 투자용은 물론 선물용으로도 손색없다"고 전했다.

한편, 대성금속은 지난 1974년 창립 이래 귀금속 관련 제품 제조, 생산 및 분석을 위해 꾸준한 설비투자와 기술개선 통해 고품질의 금, 은을 생산해오고 있다. 실버바뿐만 아니라 산업용에 사용되는 각종 소재부품 및 도금재료, 액세서리 등 귀금속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송병배기자

선문대 글로벌 리더 양성수료식 열려

선문대학교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센터장 남부현)은 지난 12일, 선문대 국제회의실에서 글로벌 브릿지 리더양성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료식에는 이재영 부총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가경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외에도 충청남도 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 한영신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이병례 장학관, 김영숙 장학사, 아산교육지원청 고미영 교육과장, 김은영 장학사가 참석했다.

학생들은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쓰는 이중 언어 연극을 선보이고 팀 프로젝트 발표를 했다.글로벌 브릿지 리더양성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2012년 시작된 이래로 7번째를 맞이했다.작년 7월부터 참가한 41명의 7기 다문화 청소년은 글로벌 리더로서 꼭 필요한 정체성 함양, 사회성 및 대인관계 증진, 창의적 문제해결력, 꿈과 비전 설정, 글로벌 시민의식, 상생과 봉사정신의 6개 영역에서 120시간 동안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7기 주니어 리더를 맡은 박미하(천안여자고등학교 · 1학년) 학생은 "선문대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통해 후배를 지도하고 도와주는 자신을 보면서 리더의 의미를 느끼게 됐다"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남부현 센터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모든 학생과 지원하고 지지해준 학부모님께 감사하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길 바라며, 앞으로 국가와 국가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전국 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 워크숍

신성대, 소방분야와 소방학과 발전 모색 위해 머리 맞대

신성대학교(총장 김병묵)가 국내 대학 소방학과 교수들을 대표하는 교수협의회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회장 권영진 호서대 교수, 이하 전소협)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신성대 국제회의실에서 '2019년도 전국 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 임원진 워크숍'을 실시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전소협의 '2019년도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회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주제로 소방분야와 소방학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화재 안전정책에 기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행사 첫날 개회식에는 권영진 전소협 회장의 개회선언 및 환영사, 신성대 장영숙 부총장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이후 대전 과학기술대 송영호 교수, 초당대 김학중 교수, 세한대 김동준 교수, 호서대 김시국 교수의 주제발표, ㈜글로벌 이앤피 박재현 대표이사의 특강으로 진행된 기술 세미나 등이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소방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해 화재특별조사, 소방공사 분리 발주 등에 대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광태 신성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소방학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응용학문"이라며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맞는 소방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충남도, 미세먼지 '매우 나쁨'… 비상저감조치 발령

충남 전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따라…도로청소, 상한제약 등 시행

충남도는 충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1일 오후 8시 북부권역, 12일 오전 3시 서부권역, 12일 낮 12시 동남부권역 등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인 75㎍/㎥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종 대기배출사업장' 117곳 등에 운영 조정을 권고하고, 도로 청소 확대 등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3일에는 보령 · 태안 · 당진 석탄화력발전 11기에 대해 발전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14일에도 태안 · 당진 석탄화력발전 6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도청을 비롯한 시 단위 공공기관에 직원 및 공용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대기오염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지도 ·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등 민감계층 건강보호조치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총 7회를 발령 ·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구기자

동구, 6년 연속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정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법무부로부터 2019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 6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이 됐다고 1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매년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배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구는 2014년 이후 계속해서 법률홈닥터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1층 법률홈닥터실(하나은행 맞은편)을 방문하거나 전화(☎251-6229)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태선기자

보령시, 올해 첫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전년대비 5.7%증가

2만4212건, 4억130만 원… 무선국 개설 및 전기사업 허가로 부과액 허가로 부과액 증가

보령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212건 4억130만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7%인 215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통신사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기사업 허가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 · 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 동과 읍 · 면지역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주요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이 1만2477건 1억4334만 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4903건 7766만원 ▲식품접객업 2209건 3289만 원 ▲전기사업 790건 2224만 원 등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세액이 적어 납부에 소홀하기 쉬운 등록면허세의 적극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게시는 물론 만세보령소식지 게재 및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보령=김정미기자

daejeontoday.com

우수 꿈나무 발굴 위해 재능기부

서산시청 사격팀, 겨울방학 사격체험 교실 운영

서산시가 유소년 스포츠 사격 저변 확대와 우수 꿈나무 발굴을 위해 겨울방학 사격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격체험 교실은 학생들이 스포츠 사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국내외 최고권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서산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감독 박신영)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체험 교실은 62사대 1천660㎡ 규모의 최신식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고 선수훈련전용 종합사격장(갈산동 소재)에서 진행되며, 국가대표급 선수를 1대 1로 매칭해 사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다할 계획이다.

체험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6회에 걸쳐 스포츠 사격의 예절과 체험 실습을 하게 되며, 수업내용으로 사격 종목 소개, 총기 안전교육 및 조준법, 양손 잡는 법, 공기권총 한손 잡는 법 등 이론과 체험을 병행한다.

또한, 사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장비에 쉽게 적응해 체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한사격연맹에서는 스크린 사격장비 4대와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충남사격연맹(회장 박종서)에서는 체험생 30명에게 단체복과 간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청양군 "결혼 · 출산 · 보육 · 교육 모두 지원합니다"

청양군, 출산정책 평생지원시스템으로 성장

청양군(군수 김돈곤)의 인구증가와 관련된 출산지원정책이 영유아 보육분야를 포함 평생지원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다.

보육분야 지원은 젊은 부부의 출산율저하 이유가 낳는 어려움보다 기르는 어려움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청양군은 현재 셋째 이후 영유아(0~만5세) 1인에 매월 10만원씩(군비 100%) 지원한다.

또 넷째 이후 영유아(0~만5세)에게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 차량운행비(1인 월 최대 12만원)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어린이를 입양하는 가정에도 어린이 1인에 300만원, 장애아를 입양할 경우 500만원의 축하금을 전달한다. 두 지원정책 재원 역시 100% 군비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500만원, 넷째아이 1000만원, 다섯째아이 2000만원이 변함없이 지원된다.

청양군은 특히 산모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현재 청양군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예산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에 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청양군 출생아는 2016년 136명에서 2017년 121명으로 줄었으나, 2018년에 121명이 태어남으로써 감소세가 멈췄다.

청양군은 출산장려금 외에도 ▲산모도우미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큰아이 돌봄서비스 100%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신혼부부 ·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산전검사 무료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및 한방치료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미혼남녀 결혼장려금도 특색 있는 지원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신혼부부 19쌍이 각각 500만원씩 혜택을 받았다.

초 · 중 · 고 · 대학생에게는 장학금 지원, 장학사업 운영, 고교 무상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충남 학생 연극 · 뮤지컬 지도교사 연수

충남도교육청, 초 · 중 · 고 교사 53명 대상 진행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4일부터 3일간 초 · 중 · 고 교사 53명을 대상으로 서산 폰타나리조트에서 '충남 학생 연극 · 뮤지컬 지도교사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진행되는 것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연극교과가 예술교과 선택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교육과정 내의 연극과목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확대 운영되고 있는 연극과 뮤지컬동아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 방법은 연극놀이의 기본원리, 무대의 이해와 공연예술 체험, 모둠별 다양한 주제로 연극 만들기 등 모둠별 강의와 실기 연수로 구성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등 전문성 높은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또한 '모둠별 다양한 주제로 연극 만들기'라는 주제로 4모둠(공동창작, 오브제로, 문학작품, 사회적 사건 등)으로 구성하고 모둠별 주제를 공연발표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충남도교육청 김신형 참학력지원팀장은 "지금은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과 사회변화요인에 잘 적응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가르칠것인가? 가 핵심이고 연극은 공감능력이나 협업능력 향상,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에 필수적인 예술 영역이어서 계속적인 발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대전교육정보원, 영재교육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8 영재교육기관 평가 및 컨설팅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전교육정보원(원장 박헌수)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2018년도 영재교육기관 평가 및 컨설팅'에서 대전교육정보원영재교육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정보원영재교육원은 2004년 11월 26일 개원한 이래 올해까지 총 14회 정보영재원생을 배출하였으며 2019년도 정보 · 로봇 영재 학생 100명을 선발하여 1월부터 동계집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 대상은 3년 주기의 38기관으로 설문평가, 방문평가, 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평가 영역은 투입영역, 과정영역, 산출영역이었다. 평가 결과 대전교육정보원영재교육원은 투입영역에서 영재교육계획과 지원체제에서 관리자와 영재지도강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지역여건과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영재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및 예산편성이 적정하여 학습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수업에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과정 영역의 교육과정 구성 및 내용, 교수학습에서는 각 과정별 103시간으로 5개 과정이 수준별로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 학생들이 각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들을 경험하고 창의적 작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과정별 리더십교육 편성으로 탐구 및 토론, 발표 중심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교육정보원 박헌수 원장은 "앞으로도 대전교육정보원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정보인재 양성을 위해 인적 및 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 과적차량 연중 단속 실시

과적근절 홍보 캠페인 병행…인명사고 사전 예방 주력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과적차량 위반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호와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단속 및 과적근절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 및 홍보 캠페인은 매년 도로 유지관리보수사업을 추진함에도 과적으로 인한 도로구조물 및 포장면 파손과 교통사고 등 차량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다.

특히 시는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세종시는 행정도시 건설현장 등 대형건설사업장 출입 차량의 과적 등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아 수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도로파손 및 인명사고를 최소화 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대전시, 1월 말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불합리한 자치법규 바로 잡는다

대전시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 · 규칙)를 일제정비하기 위해 1월말까지 자치법규 79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 상위법령 제정 ·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 상위법령을 위반해 위임범위 일탈 · 모순 · 저촉되는 사항 ▲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 · 상충되는 내용 ▲ 민선 7기 시책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 등이다.

대전시는 전수조사 후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소관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2018년도에 자체전수조사,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협업 등을 통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조례 264개, 규칙 59개 등 총 323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김태선기자

"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꼭 확인하세요"

화재안전 책임성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 시책은 확대

새해부터 화재안전제도가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소방 실무교육(2년 1회)을 받지 않을 경우 그동안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지난해 9월 3일부터는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로 부과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특히,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를 세분화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훼손 · 변경 · 장애물 적치 등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쇄 · 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이 1인당 1억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돼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영화 상영 전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난안내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안전을 위해 시설 관계자의 책임성강화와 재난약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관련 홍보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를 작숙지해 보다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제73대 장창우 논산경찰서장 취임

제 73대 장창우 논산경찰서장이 14일 취임했다.

이날 장창우 서장은 취임식을 갖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장창우 서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주민들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논산 · 계룡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장 서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1984년 순경으로 임용된 뒤, 충남 당진경찰서장, 충남청 경비교통과장, 충남청 청문감사담당관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논산=김성구기자

서산소방서, 현장활동부서 근무여건 확인 등

직원소통 위한 초도순시 나서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14일~18일까지 현장활동부서 근무여건 확인 및 직원들의 소통을 위한 초도 순시를 한다.

14일 예천119안전센터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방문은 직원 격려,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 활동여건 파악과 당면 현안업무 및 애로 ·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시급한 건의사항은 자세히 검토해 소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재래시장 등 화재 예방 활동 강화 및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 철저와 직원 상호 간 협력 및 동료애 의식 고취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위험하고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늘 감사함을 느낀다."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대전소방본부, 신규 소방공무원 52명 임용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손정호)는 14일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새내기 소방공무원 52명에 대한 신규 임용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장을 수여받은 신임소방공무원들은 지난해 소방공무원 시험을 통과한뒤 소방학교에서 12주간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우수한인재들이다.

서천소방서, 화양면 남여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 서천소방서는 지난 11일 노박래 서천군수, 최장일 서천소방서장, 각 기관 · 단체장,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양면사무소에서 화양면 남여의용소방대장이 · 취임식을 가졌다.

천안동남소방서, 신임소방공무원 소방관서 실습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구동철)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2018년 신임소방공무원 과정 교육생 6명에 대한 4주간의 소방관서 실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은 신임소방공무원 과정을 이수중인 신임 임용예정 소방공무원들로 현장배치 전 실무이해와 실무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중국어 교수 · 학습방법 개선 위한 국외연수 충남도외국어교육원(원장 박정숙)이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도내 중국어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사 융합형 직무연수 국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제2외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되는 연수다.

아산시, 겨울철 농촌관광시설 특별안전점검 나서

동절기 화재와 안전사고 대비… 오는 31일까지 실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동절기 화재와 안전사고를 대비해 오는 31일까지 농촌관광시설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시는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민간기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 관광농원 6개소, 농어촌민박 50개소 등에 특별안전점검과 함께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한다.

합동점검단은 ▲화재예방을 위한 가연성자제 등 위험물 저장 관리 실태 ▲소방 안전 관련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관리 상태 ▲동절기 대비 폭설 · 한파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 전기 안전 관련 자재 · 장비 관리 상태 등 농촌관광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꼼꼼히 점검한다.

박승우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농촌관광시설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의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즐기는 농촌관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꿈나무지킴이 채용설명회 개최

제대군인지원센터, 60세이상 시니어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는 14일 오후, 대전보훈청 5층 대강당에서 '2019년도 꿈나무지킴이 채용설명회'를 가졌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제대군인 일자리두드림(DO Dream)데이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채용설명회는 60대 이상의 시니어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시니어 제대군인 100여 명이 참석, 전반적인 채용 프로세스 및 직무를 설명하고 채용정보를 전달했다.

2019년 꿈나무 지킴이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하고 다음달 7일 합격자를 발표해 학교별 면접을 거쳐 선발될 예정이다.

꿈나무 지킴이는 대전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방지,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 초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가 추천하는 프로젝트로 선발되어 3월부터 148개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되어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송병배기자

중구 유천2동, 신규주민등록증 주말발급 예약서비스

매월 3번째 토요일에 사전예약자 대상

대전 중구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희규)는 이번달부터 신규주민등록증 주말발급 예약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학업으로 인해 행정복지센터를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점에서 고안됐다. 사전 예약자에 한해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오는 19일 첫 예약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청은 예약발급일로부터 하루 전까지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042-584-4114) 신청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선 홍보를 위해 올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252명을 대상으로 예약발급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해당월의 미발급자는 매월 전화로 개별 연락도 취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발급시엔 반명함판 사진 2매와 학생증 · 청소년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박희규 동장은 "신규주민등록증 주말발급 예약서비스가 학생들의 시간 부담을 해소하고, 공백 없는 학습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예산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확인하세요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인식시키고자 홍보 나서

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로, 도구 등을 이용하여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에는 붙박이 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설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영구 현장대응단장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현관문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는게 원칙이며,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대피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예산=양성업기자

보령소방서, 소방차 전용 구역 양보는 의무입니다

시민들 적극적 동참 필요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소방차의 원활한 접근과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였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 뒷면 ·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고가 사다리차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재분석결과 부주의가 원인 1위

공주소방서, 2018년 화재분야 통계분석 결과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안전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2018년 화재분야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화재 건수는 191건으로 전년대비 18건 감소했고, 재산피해는 976백만원으로 156백만원(13.8%) 감소했다.

주거시설의 화재는 전년대비 15건(25%) 감소, 재산피해는 199백만원(45.8%) 감소했으나 비 주거시설 화재에 의한 재산피해는 29백만원(7.1%) 증가했다.

계절별로는 주로 겨울에 65건(34%)의 화재가 집중됐으며, 여름 50건(26%), 봄 49건(25%)으로 뒤따랐다. 겨울에는 주거시설(32%)에 화재가 많았는데 화기부주의와 전기난방제품 사용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여름에는 차량엔진과열 등으로 인한 차량화재(20%)가 많았고 봄에는 임야화재(30%)가 집중되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99건(51.8%), 기계적 요인 31건(16.2%), 전기적 요인 27건(14.1%)으로 작년에 이어 여전히 부주의가 가장 큰 화재원인으로 나타났다.

장재영 예방교육팀장은 "부주의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전기제품 및 주방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건조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불 놓기를 자제하고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인하는 등의 불조심 노력이 화재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교육지원청, 미래교육자문위원회 개최

아산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아산공수초등학교 개교 추진 현황 대한 협의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은 14일, 대회의실에서 아산교육지원청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8년 교육성과를 살펴보고, 2019 주요업무계획과 아산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아산공수초등학교 개교 추진 현황에 대한 협의회를 실시했다.

2018 아산 교육 성과로,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진로교육, 공연 및 학습 발표의 장을 통한 인성교육, 위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아산 4-STEP 안전교육전개, 온마을이 학교 · 아산행복교육 지구 운영, 창의융합 사고력 신장을 위한 아산 글놀이학교 운영 등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따른 2019학년도 아산 교육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2019학년도에도 행복 아산교육을 위해 학교혁신을 지원하는 공교육을 다지고,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펼치며,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전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아산행복교육지구를 확대, 청렴과 공정의 신뢰받는 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협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2019학년도 아산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따른 공교육 혁신 지원,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역할 분담, 아산행복교육지구 실무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및 협업, 아산행복교육지원센터 및 원클릭 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심훈 교육장은 "아산 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9학년도에도 모두에게 희망 주는 행복 아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 원당중, 행복한 교육과정 마무리 시간

2018학년도 학생자치활동 마무리

당진 원당중학교(교장 정용섭)는 14일 지난 한 해 동안 학생 · 학부모 · 교사가 모두 참여해 운영한 행복한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당중학교에서는 2018년 동안 체육대회, 축제, 발표회 등 학교 행사에서 학부모와 함께 한 체험부스와 먹거리 부스를 계획하고 운영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얻은 부스 운영 수익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했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석한 협의회를 통해 학생 장학금으로 10명에게 수여했다.

원당중 교직원들은 "이렇게 뜻깊게 수익금이 쓰여 너무 기쁘다"며 "올 한 해에도 즐겁고 행복한 행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천안성환도서관

겨울방학 독서교실 운영

천안성환도서관(관장 이정숙)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 독서교실은 유아 및 학부모 <오감발달! 그림책 놀이터>, 초등저학년 <생각톡톡! 그림책 독서교실>, <세계나라 보드탐험>, 고학년 <교과연계 창의독서교실> 4개반으로 운영되며,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책과 연계한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진행된다.

독서교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연계 운영되며, 우수 수료자에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 천안성환도서관장이 수여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읽고 토론 및 다양한 독후활동에 참여하여 책 읽기의 방법과 즐거움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천안성환도서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도서관, 택배 이용 '책나래' 서비스 운영

공주도서관(관장 박찬희)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책나래' 서비스를 운영한다.

'책나래'는 공주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해 시행하는 서비스로, 등록장애인(1-5급, 단 시각장애인은 1-6급) · 장기요양등급자(1-5등급) · 국가유공상이자(1-5급)가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공주도서관과 책나래 홈페이지(http://cn.nl.go.kr)에서 회원가입 후 도서관의 승인을 받고 원하는 자료를 검색해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책나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책나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강화와 독서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나래 이용자는 "도서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책나래를 통해 집에서 책을 받아 볼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며 "앞으로도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019 창의융합영재교육원 입학식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글로벌 영재의 힘찬 도약

대전교육과학연구원(원장 배상현)은 14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창의융합영재교육원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의융합영재교육원 학생들은 지난해 12월에 관찰추천전형 및 영재성검사, 심층면접의 2단계 전형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리더십 교육, 동계집중교육, 주말영재교육, 영재특강, 하계집중교육 및 영재캠프, 탐구활동발표대회 등 104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창의융합영재교육원 수업은 각 과정별 특성에 맞게 실험, 토론, 발표, 프로젝트 등의 학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창의융합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하는데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정별 교과 중심 수업 외에도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 및 학부모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탐구능력 신장을 위해 학생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9개월간 탐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탐구활동 발표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배상현 원장은 "창의융합영재교육원은 각 분야별로 뛰어난 역량을 지닌 학생들의 영재성을 계발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재교육원 소속 학생들이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공주대,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방학특별과정 입학식

공주대학교(총장직무대리 박달원) 한민족교육문화원(원장 김영미)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은 지난 14일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일본, 카자흐스탄,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에서 온 6개국 30명의 재외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방학특별(동계)입학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입학식 행사는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장, 재외동포 팀장, 한민족교육문화원장, 재외동포교육센터장, 모국이해과정(겨울) 재학생 51명, 입학생 3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환영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고,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이 운영하며, 재외동포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대학(원) 수학준비과정, 모국이해과정, 방학특별과정으로 나누어 8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한편, 1962년부터 시작된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현재까지 8,700여명의 재외동포학생이 수료하였으며, 2019년 신입생 모집은 오는 1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공주=정상범기자

2019 제1회 신규 교육공무직원 선발 제1차 필기시험 및 인성평가

세종시교육청, 22일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오는 19일 조치원여자중학교에서 「2019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 선발 제1차 필기시험 및 인성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응시 대상자는 3개 직종 총 471명으로 ▲교무행정사 368명(장애 3명) ▲독도전시관운영실무사 37명 ▲시설관리원 66명이다.

이번 시험 응시자는 오전 10:0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실 입실을 금지하므로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도 준비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신규 교육공무직원 선발 예정 인원은 10개 직종 총 215명(▲교무행정사 17명 ▲영양사 3명 ▲조리실무사 81명 ▲초등돌봄전담사 56명 ▲특수교육실무사 12명 ▲사서 5명 ▲간호사 3명 ▲언어재활사 1명 ▲독도전시관운영실무사 1명 ▲시설관리원 36명)이며,

원서접수 결과, 선발 직종별 경쟁률은 교무행정사(일반) 25.9대1, 영양사(일반) 23대1, 간호사(일반) 37.5대1, 독도전시관운영실무사 37대1을 기록했다.

금번 필기시험과 인성평가 대상 직종이 아닌 영양사 등 7개 직종은 1차 서류심사를 거치게 되며, 세종시교육청은 1월 22일 1차 시험(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자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서, 1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2차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오는 2월 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기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선발하던 교육공무직원 선발 방식을 1차(교무행정사, 독도전시관운영실무사 : 필기시험 / 시설관리원 : 인성평가)와 2차 면접 시험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세종=김태선기자

갈산중, 자기개발시기 학사운영 내실화

꿈 · 끼응원 방과후학교→학교축제 갈뫼축제→전교생 제주도 영어캠프

대부분의 중 · 고등학교에서 학기말과 학년말은 학생들이 시험이 끝났다는 생각에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이 시기를 '자기개발시기'라고 명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하기 위한 진로진학 및 창의인성 체험 시기로 활용하여 공교육 신뢰회복 및 학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갈산중학교(교장 김재봉)는 꿈 · 끼응원 방과후학교를 시작으로 학교축제 갈뫼축제를 거쳐 전교생 제주도 영어캠프로 마무리하는 자기개발시기 학사운영 내실화를 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12월 중순부터 바리스타반, 캘리그라피반, 기타반, 뮤지컬반, 생활공예반 등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학교축제인 '갈뫼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살린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무엇보다도 축제를 저녁 7시부터 실시하여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교육공동체 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천안예술의전당에서 송년음악회를 함께 관람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동안 전교생이 제주영어교육센터에서 영어캠프를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은 활동과 체험 위주로 실시된 영어캠프에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김성구기자

순천향대, 2019 진로체험 융합과학캠프 개최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오는 15일~16일까지 1박2일일정으로 전국 고교생 257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2개 단과대학(의료과학대학, SCH미디어랩스)과 입학사정관실이 공동 주관하는 '2019 SCH진로체험 융합과학캠프'를 개최한다.

상서초, 마을과 함께하는 전국방과후학교 최우수 수상쾌거 상서초등학교(교장 윤복자)가 교육부 주최 전국방과후학교 대상(大賞) 부문에서 최수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상서초등학교는 'CREATive(Care-안전돌봄, Relation-관계, Experience-경험, Art-예술) 행복상서 방과후학교라는 주제로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행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성과를 거뒀다.

● 동 정 ● ● ●

불우이웃돕기 나눔행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15일 오전 9시 도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불우이웃돕기 돼지고기 등 나눔행사'에 참석.

조치원읍 주민자치프로그램 33개 강좌 수강생 742명 모집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재설)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 33개 강좌의 수강생 742명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다음달 1일 개강해 5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기존에 없던 문인화, 한방꽃차소믈리에, 한국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김재설 주민자치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조치원읍 제8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타 지역과 구별되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좋은 강좌 개설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수강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조치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044-300-8845)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산림녹지일자리 426억원 투입

올해 426억원 투입, 24개 분야 2466개 산림 일자리 창출한다

충남도는 산림바이오매스의 효율적 활용 및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일자리 사업을 추진,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숲가꾸기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수집, 재활용 대안을 찾는 미이용 산림용바이오매스 수집단 등에 572명을 채용한다. 이 사업에는 87억원이 투입된다.

산불 감시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보호 4개 분야에는 1453명(165억원)이 채용된다.

이들은 효율적인 감시 및 진화활동으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진화태세로 산림자원을 보호한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산불기간이 아닌 6월부터 10월까지 2개 권역으로 각각 10명씩 20명을 추가배치, 효율적인 산불 감시에 돌입한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도시녹지 전문 관리원 육성 등을 위해서도 307명(61억원)을, 산림에 대한 지식전달과 등산안내, 숲 해설, 도시숲 관리원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134명(113억원)이 채용된다.

도는 이 사업이 일자리 사각지대인 노인과 청년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서민 생계 지원과 고용 안정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규 도 산림자원과장은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산림전문가 양성, 산림생태계 보전, 목재자원 재활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산림분야 기술교육 등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사립 박물관 · 미술관 충남도 지원 방식 개선

프로그램 자부담 폐지 · 홍보 활성화 신규 지원 · 역량강화 등

충남도가 지역 문화관광 자원인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올해 우선 재정이 열악한 사립 박물관 · 미술관의 프로그램 공모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도비 50%와 시 · 군비 25%, 자부담 25%인 프로그램 공모 사업비에서 자부담을 뺀 사립 박물관 · 미술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프로그램별 총 사업비는 800만 원~2000만 원에서 1500만 원~3000만 원으로 늘린다.

또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컨설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에는 2억 원(자부담 포함)을 투입한다.

도는 이와 함께 연 2회에 걸쳐 사립 박물관 · 미술관 관장 및 학예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회도 개최한다.

고준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내 사립 박물관 · 미술관은 영세한 규모와 전시 · 교육 · 체험 프로그램 기획 운영 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고, 도민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로 사립 박물관 · 미술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사립박물관은 천안 도계민화박물관, 공주 동산박물관 등 19개소에 달하며, 사립 미술관은 보령 모산미술관, 당진 아미미술관 등 7곳에 달한다.

김성구 기자

■ 대전투데이 www.daejeontoday.com

2018년 우수한 민원행정서비스 펼쳐

예산군, 주민만족도 '탁월' · 전화친절도 '우수'

예산군이 2018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군민들에게 우수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적극적인 섬김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만족도 조사는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 조사기간 동안 방문민원인 1050명과 인터넷 민원인 169명 총 1219명을 대상으로 친절성, 전문성, 신속성, 공정성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군은 쾌적성 94.1점, 접근성 93.1점, 편리성 93.1점, 친절성 91.6점, 등 총 10개 항목에서 종합 90.4점을 받아 민원인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사 개청으로 민원인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친절성'과 '신속성'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화친절도 조사는 맞이단계, 응대단계, 종료단계, 전반적 만족도 등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를 모니터링한 결과 맞이단계 95점, 응대단계 87.6점, 종료단계 90.1점, 전반적 만족도 842점으로 총 4개 항목에서 종합 895점을 받아 전년도에 이은 '우수' 수준으로 민원인에게 공감과 배려를 충분히 표현하는 등 친절하고 상냥하게 전화응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평가 결과 주민만족도는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 ◇대술면 ◇봉산면 ◇고덕면 ◇덕산면 전화친절도에서는 ◇대술면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기획담당관이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예산군은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환류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예산군 민원행정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군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발굴·시행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섬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예산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예산군은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를 위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2019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시설물 개 · 보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 · 외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온라인투표비용지원 ◇재해위험시설 보수 · 보강 등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수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단지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금액을 세대수에 따라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씩 상향하고, 소규모 단지의 자부담률은 20~30%에서 10%~20%로 감소돼 실질적인 보조금이 확대 지원된다.

군은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지난 2007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2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 큰 도움을 주는 등 지난해까지 429개 단지에 35억 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을 정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 의결서, 미구성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오는 2월 15일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세종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하세요

일반시민 대상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무료 방문교육 연중 실시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019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의무교육대상 기관을 제외한 일반시민 또는 희망 단체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교육 대상은 민간기업 종사자, 학부모, 소상공인 등 비의무대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20명 이상, 연간 100회에 걸쳐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실시된다.

교육 문의 및 신청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세종시 지원기관인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044-862-9191)로 하면 된다.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 "다양한 교육대상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폭력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동정

에이시스(주) 기업체 방문

오세현 아산시장=15일 오전 10시 둔포면 소재 에이시스(주) 기업체를 방문.

지구협의회 총회

김홍장 당진시장=15일 오후 2시 적십자봉사관에서 열리는 2019년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총회에 참석.

군민과의 대화

가세로 태안군수=15일 오후 1시 30분 고남면사무소에서 '2019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

주민과의 대화

김돈곤 청양군수=15일 오후 2시 운곡면 순방에 나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참석.

청렴식권으로 향응 · 청탁 차단한다

당진시, 부패요인 사전 차단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청렴식권제도 운영

당진시는 지난해 3월 처음 도입했던 청렴식권 제도를 올해도 지속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식권은 공무원과 사업 추진 관계자가 부득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게 될 경우 시청사 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청렴식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관계자란 시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인 공사 · 용역 · 물품 업체 관계자와 보조금 보조사업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추진 관계자를 지칭한다.

당진시가 청렴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 추진 관계자와의 불가피한 동행 식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탁이나 향응, 접대 같은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청렴식권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람과 사전 계획 없이 점심식사를 동행해야 하거나 사전 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으나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람과 업무 협의 등을 하며 점심식사를 동행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수가 참석하는 사전 계획된 행사나 회의는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토록 했으며,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일반민원의 경우에는 청렴식권 사용을 제한했다.

한편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청렴식권제를 도입했음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총53차례, 121장의 청렴식권이 사용될 정도로 공직자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청렴식권 제도를 비롯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당진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7년 3등급에서 지난해 2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가 오는 30일까지 2019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며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약 24억원으로 식량작물, 환경농업기술, 특화기술, 과수 · 채소, 축산기술 등 7개 분야 37개 사업 57개소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단체(법인, 작목반)이며 사업장 주소지가 공고일 1월 2일 이전 아산시이어야 한다.

단, 도시농업분야 시범사업은 비영농 종사자와 단체지원이 가능하며,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분야별 농촌지도사가 현지조사를 통해 영농규모, 사업추진 의욕 등을 정밀 검토한다. 정밀 검토결과를 토대로 아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2월 말경 전문가 심의를 걸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겨울철 농가 효자작목' 냉이 · 달래 수확 시작

갯바람 맞고 자라 진한 향 일품. 냉이 1kg 3000원

태안지역 농민들이 겨울철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는 냉이와 달래 수확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지역 100여 농가에서 냉이를 수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냉이는 단백질과 비타민A, 비타민C 등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고 간에 쌓인 독을 풀어줘 간 및 위장 건강에 효과가 있으며, 소화기능을 도와 입맛을 돋우고 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냉이는 갯바람을 맞고 자라 쌉쌀한 맛과 진한 향이 일품이며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어 단순한 나물음식이 아닌 건강식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크게 각광받고 있다.

태안에서는 매년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280여 톤의 냉이를 수확 · 출하하고 있으며, 태안산 냉이는 현재 1kg에 3,000원 선으로 산지수집상 및 농협공판장을 통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등지에서 최고급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냉이재배 생력화 시범 사업'을 추진, 냉이 세척시설과 이동식 하우스, 냉이 수확기 등을 농가에 지원해 일손부족 해결 및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태안 달래는 비옥한 황토에서 자라 맛과 향이 독특하고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함유량이 많아 과로와 피로, 불면증, 빈혈, 중풍, 식욕부진, 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어 도시민들의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지역의 냉이는 해풍을 맞고 자란 무공해 농산물로서, 비옥한 황토에서 자라 뿌리가 곧고 깊게 뻗어 상품성이 뛰어나다"며 "태안지역의 고소득 작목으로 정착되고 있는 냉이와 달래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염치읍 제7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아산시 염치읍(읍장 박종민)은 제7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4일 전했다.

위원회는 25명으로 새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 김종원 위원이 선출돼 2020년까지 2년간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김종원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이에 박종민 읍장은 "새로 위촉되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읍 귀농 · 귀촌인과의 간담회 열려

청양읍(읍장 최율락)은 지난 11일 읍사무소에서 귀농귀촌인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새내기 귀농 · 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논의, 청양군 귀농지원정책 안내, 귀농인 모임 활성화방안 모색 순으로 이어졌다.

라희중 청양읍지회장은 "귀농 · 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에 물심양면 힘쓰는 읍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율락 읍장은 "정착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읍사무소를 찾아 귀농 · 귀촌 안내창구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정상범 기자

AI 예방 위해 삽교호 자전거길 폐쇄

당진시,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두 달간

당진시가 겨울철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머무르는 겨울철새들이 북상하는 시기에 맞춰 철새도래지인 삽교호 인근 자전거도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폐쇄구간은 신평면 운정리부터 우강면 신촌리까지 약 6㎞ 구간의 삽교호 자전거길이며, 폐쇄기간은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당진시는 폐쇄 구간 입구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과 자전거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한편 당진시는 현재 구제역 ·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평면에 거점소독초소 1개소도 운영하는 등 겨울철 가축질병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검사를 강화하고 가금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소독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있으며, 삽교호와 석문방조제 등 겨울철새 도래지 주변에 대한 집중 방역도 추진 중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삽교호 자전거길을 임시 폐쇄하는 것은 AI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진=최근수 기자

청양군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설 명절을 맞아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터미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4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청양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구조부의 손상 · 균열, 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의 정상작동 및 전기기구의 접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부적합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 보강 조치명령을 통해 설 이전까지 개선토록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김종섭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명절 연휴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군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우/리/동/네

태안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총력

2월말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대책 추진

태안군이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겨울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사람 중심의 복지 실현에 힘쓴다.

군은 지난달 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대책'을 추진,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등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 복지제도를 잘 모르는 취약계층에 제도의 취지를 적극 알리고,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을 추가 제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등 생계비 지출이 증가하고 임시 ·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발굴대상은 ▲복지 소외계층 ▲'행복e음' 내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 등이다.

군은 각 읍 · 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용해 의료 및 경제적 위기가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와 노인 · 장애인 부양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이 · 반장과 읍 · 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특히 지난달 위촉한 '우리동네 행복지킴이'와 같은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는 등 민 · 관 협력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발굴 후에는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비용 지원 등 공적지원을 연계하고 방문상담과 통합사례관리,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등에 나선다.

더불어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을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방문상담 및 후원물품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 한 명의 복지 미혜택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대책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면허(각종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를 받은 자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돼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이 된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청양군은 법령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CD/ATM기, 신용카드(삼성, 신한, BC 등) 포인트(포인트 결제 후 부족분은 카드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세금으로서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 농한기 이동건강증진실 운영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돕기 위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이동건강증진실을 운영한다.

농한기에 운영되는 이동건강증진실은 군내 경로당 62곳을 순회하게 되며,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여부를 알리기 위한 혈압 · 혈당 측정과 상담을 병행한다.

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9대 수칙 홍보를 중심으로 ▲한파대비 건강관리 ▲금연, 절주, 영양, 비만예방 교육 ▲구강보건교육, 틀니함 등 구강위생용품 배부 ▲치매예방법과 치매조기검진 ▲우울증 예방교육과 우울증검사 등을 제공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자칫 건강에 소홀해질 수 있는 겨울철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민선7기 시정 올해 542건 전략 추진

천안시, 혁신과 협업으로 더 큰 행복 실행 위한 주요업무실천계획 보고회 열려

천안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6급 이하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주요업무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시민중심 민선7기 행복시정은 지난해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올해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 대응, 다양한 욕구 부응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점 사업 208건 등 총 542건의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민선7기 시정목표인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올해는 7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7대 분야는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 실현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 ▲100만 인구 대비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인프라와 교육지원 확대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 ▲소통 · 공감 · 화합의 열린 행정 구현 등이다.

특히 정부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에 8조7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혀 시는 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천안형 생활밀착 사업을 발굴해 국비확보에 주력하면서 일자리 · 복지 · 안전 · 환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경력단절 여성, 신장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 종합지원 강화 ▲ 제6산업단지와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및 OLED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이 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 온종일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여성비전센터 · 노인회관 건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과 빅데이터 재난 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천안외곽순환도로 단계적 개설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천안역세권,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남구 신청사 완공,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100만 인구 대비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인프라와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생활 속 문화 공연을 확대하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함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을 통해 일생생활 속 시민 삶의 품격을 높이고,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인 월급제 도입,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확산, 로컬푸드 유통센터 건립 등을 착실히 추진한다.

기업체 사전 세무컨설팅,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빅테이터를 활용한 효율행정, 일하는 방식 업무 시스템 개선 등 행정의 혁신을 도모를 통해서는 소통 · 공감 · 화합의 열린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2019년 주요업무실천계획은 시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각 분야별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는 종합계획"이라며, "시정의 연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 행정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들을 착실히 이행해 더 큰 행복, 더 큰 천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 정

수여식

구본영 천안시장= 15일 오전 10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하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

열린 군정 희망의 대화

노박래 서천군수= 15일 오전 11시 문예의전당에서 열리는 2019년 서천군 개인택시지부 정기총회에 참석, 오후 2시 마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2019년 열린 군정 희망의 대화에 참석.

동행콘서트

박정현 부여군수= 15일 오전 10시 옥산면에서 열리는 동행콘서트에 참석.

민선7기 '찾아가는 동행콘서트' 열려

박정현 부여군수 25일까지 읍면 순방나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14일 임천면과 세도면을 시작으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여 민선7기 군정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고 군민이 원하는 부여의 미래상을 직접 듣기 위한 "찾아가는 동행콘서트"를 개최했다.

새해를 맞아 열리는 읍면 순방 '찾아가는 동행콘서트'는 민선7기의 군정비전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의 배경과 취지, 그리고 슬로건인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를 설명하고, 특히 공사와 용역의 연간 수의계약 금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충남 최초 농민수당 지급, 기업형 축사와 산업폐기물 처리업,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한하는 3불 정책, 인사와 사업청탁의 근절, 군민이 중심이 되는 부여 등 민선7기의 중심 정책을 공유하고 주민 각계각층의 가감 없는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읍면순방과는 달리 의전과 격식을 최대한 간소화 하고 좌석 배치 역시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 군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진솔한 대화가 되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 시작 전에 군청 실과장을 통해 주민숙원사업과 건의사항을 접수 받아 직접 답변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동행콘서트가 되었다.

행사에 앞서 박정현 군수가 임천면 최고령 어르신(이순복, 100세, 임천 탑산리 거주)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눈 후 임천면사무소로 이동하여 직원들과 새해인사, 임천면장의 면정보고, 기획조정실장의 군정운영계획 프레젠테이션, 박정현 군수와 주민들의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찾아가는 동행콘서트 일정은 15일 옥산면 · 홍산면, 16일 양화면 · 충화면, 18(금) 남면 · 장암면, 22일 외산면 · 내산면, 23일 은산면 · 규암면, 24일 초촌면 · 석성면, 25일 구룡면 · 부여읍 순으로 오전 · 오후 나누어 진행된다.

부여=김성구기자

논산시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일 · 가정 양립 위한분위기 조성 앞장서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3년 최초 인증에 이어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2008년 도입한 제도로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시는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1년까지 3년 동안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이번 인증심사과정에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추진의지 및 가족친화 복지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높은평가를 받았다.

시는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해 야근 등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산전 · 후 휴가 및 육아휴직 최대보장, 유연근무제 실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자녀보육복지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일 · 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확산에 앞장서왔다.

시 관계자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직무 몰입도 및 효율성 제고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을 즐겁게 병행할 수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에 맞는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2019 겨울방학 영어캠프 개강

천안시는 14일 나사렛대학교에서 겨울방학 맞이 '2019 천안시 겨울방학 영어캠프' 입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캠프의 시작을 알렸다.

시는 나사렛대학교와 오는 26일까지 2주간 관내 초 · 중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영어 역량 강화와 흥미 유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이날 영어캠프 입소식은 참가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원어민 교사 소개, 지난 캠프 활동 동영상 시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숙캠프로 운영되는 이번 캠프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영어학습의 4가지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

또 공예, 댄스 등 다양한 체험교육과 영어연극, 벼룩시장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천안시 영어캠프는 학생들의 국제적 역량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관학 협력으로 천안시와 나사렛대학에서 참가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우며 10년 넘게 꾸준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천군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에 군민 의견 반영

의견공유 ·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공청회 열려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 주민공청회를 지난 12일 군사3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군은 국토부 소관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신청 및 추진에 군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 주민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50여명은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동네를 만들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 제시하면서 설문자료를 작성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주거지원 프로그램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공청회를 통해 얻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취합하고 분석해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동네살리기는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닌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맞춤형 도심개발로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실현,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계룡시,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룡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실시된다.

시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 의심자로 조회(복지부 HUB 시스템)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각 면 · 동 담당 공무원과 통 · 리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실시되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 ·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실 조사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계룡시,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계룡시는 14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혈액원와 함께 시청현관 앞에서 부족한 혈액 수급 안정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시민, 기관 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하세요"

부여군, 문화예술 · 여행 · 체육 분야서 사용 가능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하고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가맹점에 한해서 영화 · 공연 등 관람, 도서 · 음반 등 구입, 숙박 · 놀이공원 등 이용, 스포츠 관람 · 운동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카드 발급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된다. 카드는 개인별로 1매씩 발급되며 1인당 연간 8만원의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며, 문화예술 · 여행 · 체육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며, 가까운 읍 · 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분증 등 지참)하여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에도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과거(2015~2018)에 발급 · 등록했던 카드 보유자는 신규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지원금만 충전하여 재사용하면 되고, 신청 절차는 동일하다. 재충전을 위해 기존 카드를 지참하면 신청절차가 훨씬 간편해질 수 있다. 단, 카드 전면에 표시된 유효기간 연도가 2019년인 카드는 반드시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카드의 이용기한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이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 · 면사무소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부여=김성구기자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교실 운영

계룡시, 경로당 순회 방문 교육 · 생활 속 낙상사고 예방 당부

계룡시 보건소는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예방교실'을 운영, 호평을 받고 있다.

보건소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말일까지 방문건강관리사가 각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겨울철 낙상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대비 방법, 낙상 후 사후 관리 교육 등 낙상사고 예방을 추진 중이다.

노인들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치료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골절로 인해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감소해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골절로 인한 합병증, 낙상할 공포심으로 우울증도 야기할 수 있어 평상시 안전에 대한 관심과 낙상 예방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있는 식사를 하고 꾸준히 하체 근력, 균형, 유연성 운동도 병행해야한다.

이에 따라 계룡시 보건소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풍선을 이용한 관절가동범위 증가운동, 하지 근력 및 균형감각 제고 운동방법을 알려주며 꾸준히 운동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욕실, 계단 등의 물기제거,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등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낙상하는 경우 벌떡 일어서거나 몸을 바로 세우지 말고 아픈 부위가 어딘지 정확히 확인해 골절이 의심이 되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 치료받을 것을 강조했다.

임채희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청소년 겨울 영어캠프 수료식 열려

서천군, 초 · 중등학생 68명이 참여한 영어캠프 마무리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겨울방학을 맞아 건양대학교와 함께 관내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겨울 영어캠프를 지난 1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건양대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참여 학생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유쾌한 겨울 영어캠프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영어캠프는 초등학생 47명, 중학생 21명 등 총 68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양대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에서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원어민 교수의 생활영어 지도는 물론 건양대 재학생들이 보조교사로 참여해 영어일기쓰기와 영어권 나라의 사회 알아보기, 영어 음악수업, 영어로 과자 구매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이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동 정

새해 시민과의 대화 실시

김정섭 공주시장= 15일 오전 10시 신관동, 오후 2시 유구읍을 방문해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김동일 보령시장 = 15일 오전 10시 오천면사무소에서 열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오전 10시 50분 천북면에서 열리는 민생현장 방문.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맹정호 서산시장= 15일 오전 10시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 오후 2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한돈협회 · 축산단체협의회 성금 기탁식에 참석, 오후 5시 서산제일감리교회에서 열리는 서산시기독교총연합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성균관유도회금산지부회장이 · 취임식

문정우 금산군수= 15일 오전 11시 금산읍사무소에서 열리는 금산향교 전교 및 성균관유도회 금산지부회장이 · 취임식에 참석.

올해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시책 강화

보령시, 다양한 시책 펼쳐… 기업 유치 최우선

보령시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의 심화로 기업의 지방이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시책을 적극 펼쳐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먼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3억 원에서 23억 원씩 시비를 출연해 기업투자 유치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이전기업 투자보조, 입주기업의 고용, 교육, 이주정착, 전세금 지원에 사용하고, 지난해 10월 창업투자회사인 BSK 인베스트먼트와 협약 이후 13개 기업을 유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는 2022년까지 웅천일반산업단지와 산업단지 부지에 50개 기업을 유치, 15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으로 지원정착지원,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민간취업연계형 등 3개 유형에 6억여 원을 확보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준비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드림 취업캠프 운영, 각종 일자리 정책 및 시책, 기업의 구인구직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내 스마트 일자리 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4억 원을 출연해 최대 48억 원의 지원자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금융기관에 대출시 업체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하고, 평균 4%인 이자 중 2%를 시에서 보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에게는 4대 보험의 사업주 부담료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제품구매 촉진 마케팅과 판로 지원 등 행 · 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책도 확대된다. 제조업체 근로자 중 전입자, 신규 취업 전입자에게는 1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수도권 이전기업 근로자는 3년 이상 주소를 유지 시 근로자는 150만원, 전 가족 이주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지역 고교생 및 인근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취업조건으로 장학금 지급과 청년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연봉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산 · 학 · 관 협력 기술개발비 지원으로 제품개발과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특허출원 및 상표 · 디자인 개발 등 지역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며, 매월 발전소주변지역에는 200kw, 그 밖의 지역에는 100kw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보령=김정미 기자

서산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농업기반시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수수료 30% 감면

서산시는 관내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인의 경우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첨부하여 측량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농가주택 신축을 위하여 660㎡의 대지를 분할할 경우 그동안은 분할측량 비용으로 약 80만원의 지적측량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올 12월 연말까지는 30%가 감면된 약 56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지난해 서산시 관내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례는 98건으로 28,401,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신청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측량 신청하면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90%에서 50%까지 감면받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되면 관내 농업인 등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서산= 김정한기자

금산산림문화타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확대

금산군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등록번호 103호)로 등록된 금산산림문화타운에서 숙박, 캠핑 등 휴양시설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 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카드)으로 결제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생태도시 금산의 남이면 건천리에 위치한 금산산림문화타운은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 잘 보존되어 있어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청정숲에서 다양한 숲 · 목공체험, 산책, 숙박, 캠핑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중부권 최고의 생태종합휴양단지이다.

현재 겨울방학을 맞아 체험 프로그램인 얼음 썰매장이 개장되어 아이들의 놀이터로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기존 오감만족 숲 · 목공체험과 함께 임산부와 어르신, 갱년기 여성 대상 힐링 및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등을 개발 ·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태아부터 노년기까지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바우처카드의 이용이 더욱 확대되어질 전망이다.

한편,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카드)은 경제적 ·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에게 숲에서의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과 초록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인당 1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등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발급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우/리/동/네

공주시, 역량강화 강소농 교육생 모집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오는 31일까지 작지만 강한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열정을 가진 2019년 신규 강소농 교육생을 모집한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경영규모는 작으나 미래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업농 미만인 중 · 소규모 가족농이 신청 대상이며, 이 중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농업인을 선발한다.

선발된 농업인은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을 통해 강소농의 기본개념과 사업 목표, 경영개선 실천 교육 등을 이수하게 되며, 기본교육 이수 후 강소농으로 최종 확정된 농가는 경영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자율모임체 육성, 현장컨설팅, 품목기술교육 등 다양한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강소농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 역량개발팀(041-840-86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광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급격한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강소농 단계별 경영개선실천교육과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농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강소농 교육을 통해 지난해까지 650여명의 강소농을 육성했으며, 지난해 12월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농 대전에서는 공주시 자율모임체 '고마농부(대표 박태석)', '도듬(대표 방순일)'이 참여해 공주시 강소농 활동성과와 우수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군, 명품교육도시 환경조성 박차

고교 무상교육 등 전폭지원

금산군은 2019년 자녀 교육시키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학생들을 위한 합리적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군비 19억8000만원을지원키로 했다. 도비 보조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20억4700만원이다.

이는 작년 19억1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소규모 옥외체육관 증축과 100주년을 맞이한 학교 역사관 건립, 지역 특색(인삼약초)을 살린 특성화 프로그램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로봇활용 프로그램 지원 등에 쓰인다.

또한, 금산군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충남도, 충남도교육청과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본격 시행한다.

군은 금산 지역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충남도와 공동지원하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충남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총 사업비는 710백만원으로 군은 50%에 해당하는 3억5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인재 육성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므로 올해 교육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산군의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만세보령 농특산물 우체국 쇼핑몰 통해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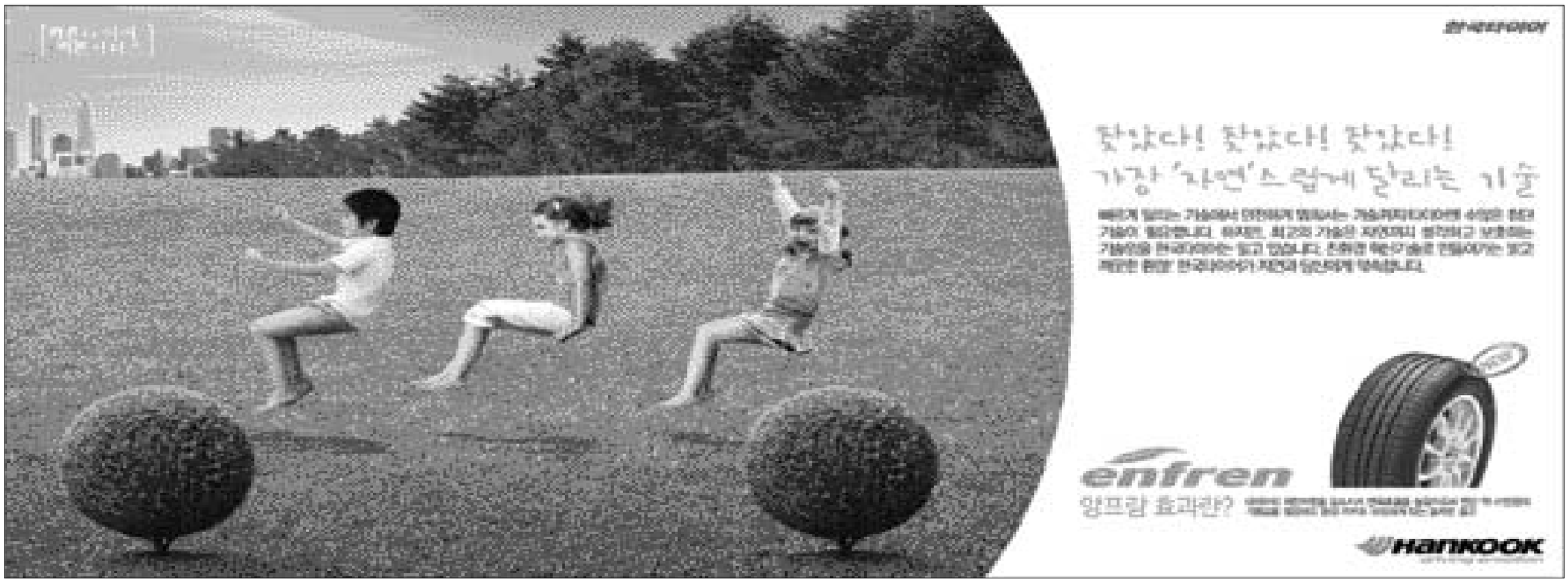
새해 및 설 대목 맞아 품목별 최대 3000원까지 할인 판매

보령시는 새해 및 설 대목을 맞아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품목별 최대 3000원까지 만세보령 농특산물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시는 만세보령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유통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쇼핑몰 지역 브랜드관에 홍보판촉을 위한 '보령장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보령조미김을 비롯해 30개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는 것이다.

주요 할인 품목으로는 방촌농원의 해풍 맞은 배와 대명당벌꿀의 야생화꿀 등이 3000원을 할인되고, 지난 2013년 출시돼 2015년 전국 고품질 브랜드 평가 금상을 수상한 만세보령쌀 삼광미, 완벽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을 받은 해날멸치세트, 보령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을 활용해 유기농으로 만든 베베미 아기과자 등이 2000원, 친환경 양송이 버섯과 옥계농원 방풍나물 등이 각 1000원이 할인 판매된다.

구입은 우체국 쇼핑몰(https://mall.epost.go.kr)에 접속해 카테고리의 '기획전' → '지역브랜드관' → '만세보령 설 쿠폰할인전'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41)로 하면 된다. 보령=김태선기자



TV 오늘의 하이라이트

▲ 차달래부인의 사랑 (KBS2 오전 9시00분)

진옥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홈쇼핑 성공파티를 벌이고, 같은 시간 복남은 쪽지 하나만 남기고 집을 떠나 버린다. 맥을 못 추고 누워 있는 달숙을 본 미래는 혹시 임신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 강남 스캔들 (SBS 오전 8시20분)

미리와 진복을 갈라놓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서형. 이를 눈치챈 미리는 진복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진복은 예상과 달리 담담한 표정을 말없이 미리를 보는데... 한편, 서형에게 매번 당하는 소유가 안타까운 서준은 백희에게 소유를 부탁한다. 백희는 뜻밖의 기회에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는데...

▲ 용왕님 보우하사 (MBC 오후 7시15분)

세상 만물의 수천 가지 색을 읽어내는 '절대 시각'을 가진 여자 심청이가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는 남자 마풍도를 만나 사랑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밀을 찾아내는 현대판 심청이 이야기.

케이블 명화

▲ 쿵푸팬더 1 (OCN 오후 2시50분)

하.면.된.다 - 포.스.작.렬

'평화의 계곡'에서 아버지의 국수 가게를 돕고 있는 팬더, 포. 아버지는 국수의 비법을 알려주어 가업을 잇게 하고 싶지만, 포의 관심사는 오로지 '쿵푸 마스터'. 가게 일은 뒷전으로 하고 쿵푸의 비법이 적힌 용문서의 전수자를 정하는 '무적의 5인방' 대결을 보러 시합장을 찾은 포, 그런데 이게 웬 일! 마을의 현인 우그웨이 대사부가 포를 용문서의 전수자로 점지하는 이변이 일어난다.

무적의 5인방은 물론 시푸 사부 역시 이 사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용문서를 노리고 어둠의 감옥에서 탈출한 타이렁이 마을을 습격해오자 그를 막아야 하는 미션이 포에게 떨어지는데... 포는 쿵푸마스터로 거듭날 수 있을까? 아니... 포가 쿵푸를 할 수는 있을까?

쿵푸라고는 전혀 모르는 평균 수면시간 22시간, 이동속도 시속 30cm, 키 120cm에 몸무게 160kg인 초고도 비만팬더 포는 자신이 영웅이라는 소리에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이런 포가 못미덥지만, '예언의 인물' 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를 가르치기 위해 쿵푸 마스터 시푸 사부가 동원된다.

▲ 벤허 2016 (채널CGV 오후 10시30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

경주는 시작일 뿐이다!

로마 제국 시대, 예루살렘의 귀족 벤허는 로마군 사령관이 되어 돌아온 형제와도 같은 친구 메살라를 반갑게 맞이한다. 그러나 메살라의 배신으로 벤허는 가문의 몰락과 함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5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돌아온 벤허는 복수를 결심하지만, 사랑하는 아내 에스더의 만류로 갈등한다.

이에 간악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승리를 위해 제국에 맞서 목숨을 건 전차 경주를 준비하는데...

2016년 새롭게 재탄생한 불멸의 명작.

20세기 최고의 걸작 <벤허>가 2016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벤허>는 로마 시대, 형제와도 같은 친구의 배신으로 가문의 몰락과 함께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한 유대인 벤허의 위대한 복수를 그린 대서사 액션 블록버스터. 1880년 남북전쟁의 영웅인 루 윌리스 장군이 쓴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1907년 무성영화로 처음 만들어진 후 1925년, 1959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리메이크 작업이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6:40 아이언맨2
8:50 아이언맨3
11:10 프리스트
14:00 쿵푸팬더
15:50 쿵푸 팬더 2
17:20 쿵푸팬더3
19:20 원라인
22:00 로그원: 스타워즈스토리

◈ 채널 CGV
7:10 박물관이살아있다3: 비밀의무덤
9:00 비정규직특수요원
11:10 배트맨비긴즈
13:40 지랄발광17세
15:40 마녀의발견
17:30 어카운턴트
20:00 스파이더맨
22:30 벤허(2016)

◈ Mnet
5: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
7:10 M morning
8:00 썸바디
9:50 2018 MAMA in HONG KONG 베스트 퍼포먼스
12:10 썸바디 스페셜
13:4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4:30 2018 MAMA FANS' CHOICE in JAPAN
18:00 썸바디 스페셜
19:30 Daily Music Talk (SMS)
20:20 2018 MAMA PREMIERE in KOREA
23:00 인싸채널 체리블렛

스포츠 · 레저

◈ MBC스포츠플러스
10:00 2018 NFL
13:00 <당구스페셜>2018 클루망스 컨티넨털컵
15:00 <당구스페셜>2018 클루망스 컨티넨털컵
17:00 2018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19:00 18-19 프로농구 CLUTCH TIME
19:30 18-19 SKT 5GX프로농구

◈ SBS 스포츠
11:00 2018 AFF 스즈키컵 하이라이트
12:00 2018 아시안게임
14:00 2018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15:40 2018 AFF 스즈키컵 10분 하이라이트
16:00 18-19 V리그남자부
18:00 주간배구 다이제스트
18:50 18-19 V리그남자부

◈ 온스타일
6:3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7:30 겟잇뷰티 2018
9:40 신혼일기
11:1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3:3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5:30 겟잇뷰티 2018
16:4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7:50 밥블레스유
18:50 식샤를 합시다3 : 비긴즈
20:10 식샤를 합시다3 : 비긴즈
21:20 대탈출
22:50 꽃청춘위너
23:50 밥블레스유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1:00 뉴스21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한국경제TV
7: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 라인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4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팔구
21:30 대부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아시아 헌터
13:15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4:15 이주의 법칙
14:45 잠베지 계곡의 사자와 악어
15:45 인도호랑이 쿠말의 여정
16:45 TV 동물농장
19:00 아시아 헌터
20: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21:00 <BEST PICK>지니어스

음악 · 애니

◈ MBC 뮤직
9:00 피크닉 라이브 소풍
10:00 MBC MUSIC HIT SONGS
12:10 쇼! 음악중심
13:30 언더나인틴
15:00 순위의 재구성
16:30 창작의 신
18:00 쇼 챔피언 비하인드
19:00 주간 아이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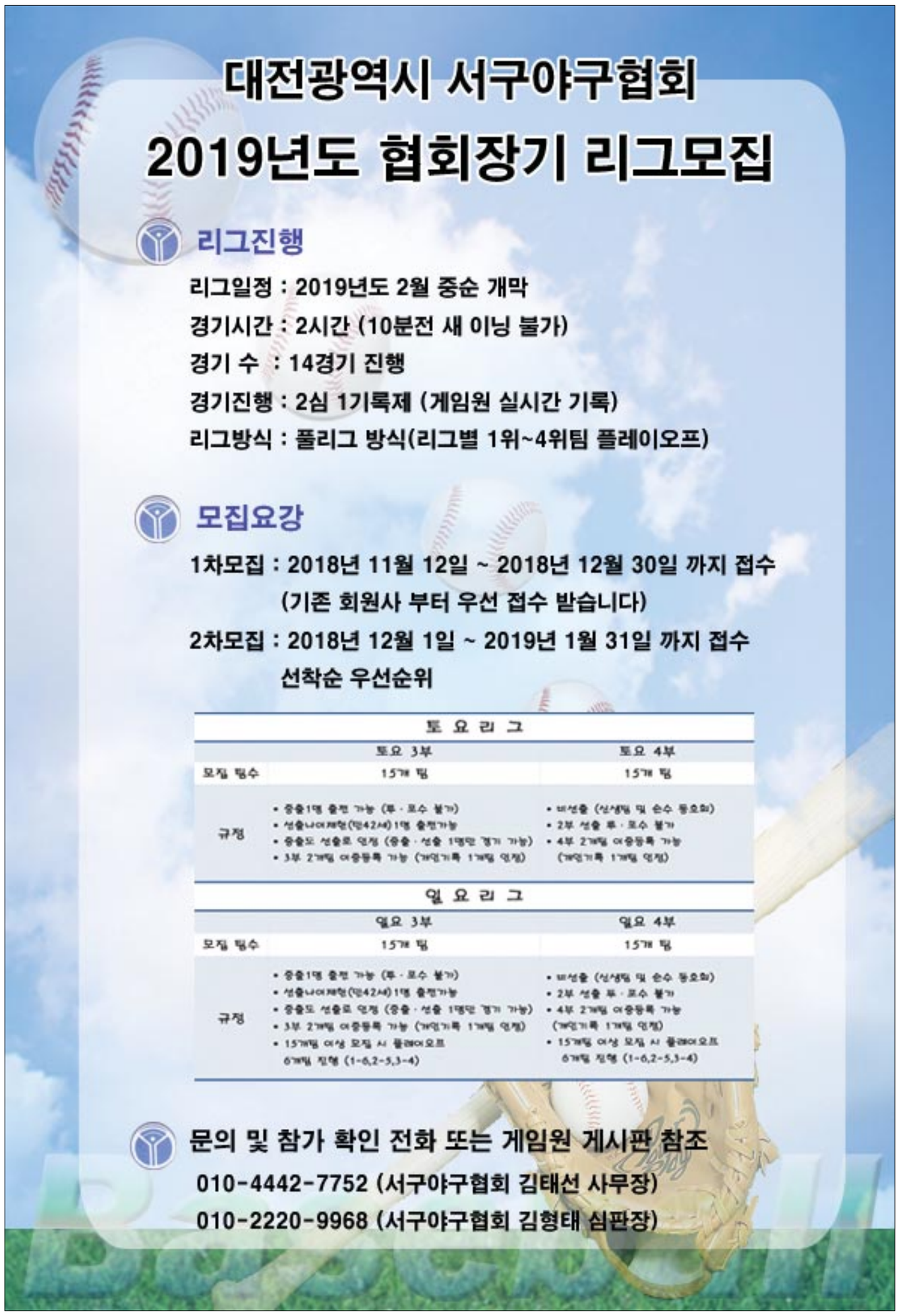
◈ 애니맥스
6:00 바이클론즈 5
7:00 아울은너무 이상해
8:00 포켓몬스터 썬&문
9:00 레인보우 루비
10: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3
11:00 유후와친구들3
12:00 터닝메카드 W 시즌2
13:00 명탐정코난 시즌3
14: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part2
15:00 소피루비 part2
16:00 레인보우 루비
17:00 헬로 카봇5

◈ JEI 재능방송
6:00 고고다이노 시즌2
7:00 이야기배달부 동개비
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9:00 파워캐치 윈다 part2
10:00 뽀롱뽀롱 뽀로로5
11: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3
12:00 라바 시즌3
13: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14:00 유희왕 ARC-V
15:00 플레이징 틴스5 part2
16:00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 11기
17:00 안녕! 보노보노
1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MBC 220-2348~9 ▶TJB 281-1101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6:00 MBC 뉴스투데이	6	6:00 모닝와이드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30 은혜로운 말씀	6:00 한국기행 6:20 세계테마기행 7:00 레이디 버그
7:50 인간극장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50 용왕님 보우하사	7	7:40 모닝와이드	7:30 시청자뉴스	7:30 로보카 폴리 7:45 꼬마버스 타요
8:25 아침마당	8:00 KBS 아침뉴스타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8	8:30 강남 스캔들	8:00 뉴스와이드 8:50 청곡 박일규의 묵향	8:00 딩동댕 유치원 8:30 엄마 까투리
9:30 KBS 뉴스	9: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9	9:10 좋은 아침	9:00 메디컬 인 9:30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	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9:00 방귀대장 뿡뿡이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40 지구촌 뉴스	10:50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10	10:1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0:00 파인드 세종맛집 10:50 리쉬아 요가	9:30 이얍! 스페이스 정글 9:40 부모-위대한 엄마
11:00 한국인의 밥상 11:50 UHD 한식의 마음	11:00 동네변호사 조들호2-죄와벌	11:50 앙코르 MBC스페셜	11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김회영의 이슈 앤 이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00 KBS 뉴스 12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55 제보자들	12:00 12 MBC뉴스 12:20 경성판타지 (울산M)	12	12:00 SBS 12뉴스 12:50 불타는 청춘	12:00 CMB 뉴스 12:50 시청자뉴스	11:20 세계 테마 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00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늬우스 1:50 걸어서 세계속으로	1:15 트레킹 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25 뿌까 1:55 2시 뉴스외전	1	2:00 뉴스 브리핑	1:20 최자영 시인 내 안에 그대 1:30 세종의 종소리	12:10 미스터리 휴먼다큐 12:40 지식채널 e
2:40 코리언지오그래픽 플러스	2:00 KBS 뉴스타임 2:10 생활의 발견	3:25 프리파라3 3: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2		2:00 무악전기 2:50 리쉬아 요가	13:35 뷰티풀 코리아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3:00 가요무대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유치원	4:25 판다랑 4:55 5MBC뉴스	3	4:00 접속! 무비월드	3:00 CMB뉴스 3:50 청곡 박일규의 묵향	14:2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4:00 사사건건	4:00 그녀들의 여유만만	5:15 최충우돌 만국 유람기	4	5:00 SBS 오뉴스	4:00 행복비나리	14:55 모피와 친구들
5:00 KBS 뉴스5 5:30 동물의 왕국	5:00 삼청동 외할머니		5		5:00 파인드 세종 맛집	15:05 피터래빗
6:00 6시 내고향	6:00 KBS경제타임 6:40 2TV생생정보	6:15 생방송 오늘 저녁	6	6:00 영재발굴단	6:00 뉴스와이드 6:50 시청자뉴스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요술상자
7:00 KBS 뉴스7 7:35 이웃집 찰스	7:50 왼손잡이 아내	7:15 용왕님 보우하사 7:55 MBC 뉴스데스크	7	7:00 생방송 투데이	7:15 리쉬아 요가 7:30 CMB 집중토론	16:15 방귀대장 뿡뿡이 16:45 딩동댕 유치원1
8:25 비켜라 운명아	8:30 글로벌 24 8:55 동네변호사 조들호2 : 죄와벌	8:5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8	8:00 SBS 8뉴스 8:55 본격 연예 한밤	9:00 뉴스와이드 9:50 최자영 시인 내 안에 그대	17:05 딩동댕 유치원2 17:15 엄마 까투리
9:00 KBS 뉴스9 9:55 나의 독립영웅			9			17:30 로보카 폴리
10:00 시사기획 창 10:55 UHD 숨터	10:00 동네변호사 조들호2 : 죄와벌	10:00 나쁜 형사	10	10:00 복수가 돌아왔다	10:00 김회영의 이슈 앤 이슈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1 18:05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1:00 오늘밤 김제동 11:40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11:10 볼빨간 당신	11:10 PD수첩	11	11:10 불타는 청춘	11:00 메디컬 인 11:30 문화창	18:2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2 18:25 호기심 나라 오키도 18:40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3 18:45 신통방통 공룡슈퍼 18:55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4 19:00 소피 루비 19:30 EBS 뉴스 19:50 극한 직업 20:40 다큐 오늘



자동차 종합 정비공장
에스더블유기업(주) SW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21
Tel. 042-528-1801 / Fax. 042-528-1833
Mobile. 011-429-8377 / e-mail. kyungho0710@nate.com
대표이사 안 경 호
www.sw-motors.com

MSL 레저용품 전문점
명성레포츠
스키 · 스노보드 · 자전거 · MTB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보드보드 · 골프용품
專務理事 최 재 종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478-6 TEL : 042)489-3030 · 486-7070
FAX : 042)472-3685 H · P : 011-406-6660 Website : www.mslsports.co.kr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 서산시 사업장 방문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충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감시단 점검반원과 함께 14일 서산시 소재 A사업장을 방문하여 환경시설 정상가동여부를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시기인 만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남대 차태병 동문 발전기금 2000만원쾌척 한남대학교는 차태병 동문(화학과 81학번, 오토피아 대표)이 14일 오후 학교 총장실을 방문해 대학발전기금 2,000만원을 이덕훈 총장에게 기탁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충남본부 · 나눔축산운동본부, 충남도에 떡 · 햄 기부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조소행 NH농협은행 충남지역본부장과 정문영 나눔축산운동본부 충남도지부장(천안축협조합장) 등으로부터 '희망떡국떡' 1000상자와 '살코기햄' 200상자를 전달받았다.

기찬수 병무청장, 사회복무연수센터 찾은 교육생들 격려 기찬수 병무청장이 14일 2019년 첫 교육소집이 시작되는 사회복무연수센터를 방문, 전국 각지에서 복무교육을 받기 위해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찾은 교육생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있다.

서천교육지원청, 국제 학예봉사 활동 실무 협약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국제교류 사전 방문단 일행은 13일부터 16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골구청에 방문하여 국제 학예봉사 교류활동을 위한 실무 협약식을 가졌다.

신탄진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전달 대덕구 신탄진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귀훈)는 지난 11일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 2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신탄진동(동장 강동구)에 전달했다.

박사 출신 김명중 맞춤형 복지팀장 제안에 지역대표들 힘 보태

연산면 '환난상휼 사업' 주민들 빙그레

논산시 연산면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우울해 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년째 펼치고 있는 환난상휼(患難相恤)day 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동 사업을 시작한 첫해 기대이상의 긍정적 반향을 토대로 2년차 사업을 시작한 2018년도에는 지역 내 기관 사회 단체가 대거 참여하면서 부터는 이사업을 논산시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동 사업은 사회회복지학 박사 출신인 김명중 맞춤형 복지팀장이 2017. 9월경 복지사각지대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연산면 인적안전망운 영 정비로 환난상휼(患難相恤)day를 운영 하자는 계획을 마련했고 이에 공감한 김종철 면장, 도기정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리더 그룹은 적극적인 지원을약속 했다.

이에 김명중 팀장을 비롯한 실무팀은 복지자원발굴로 지역주민중 어려운 가정을 보살피고 도와주기 위한 환난상휼(患難相恤)day 계획을 수립 홍보에 나섰고 김종철 면장은 11.5 복지자원 발굴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한데 이어 관,민 52명으로 구성된 연산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출범 시켰다.

협의회는 위원장에 도기정,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에 정규태 전이장단장 총괄총무에 최종석 이장을 나눔분과장에 석순덕, 사례관리분과장에 이영숙 씨를 선임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22일 낮 환난상휼 day 제1회, 행사를 가졌다.

떡국을 메뉴로 한 이날 행사에는 12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고 2회 행사를 가진 12월 20일에는 새마을 지도자회 중심으로 120여명이 참석 하면서 떡국 나눔 행사를 통한 기부금은 총 200여만원에 달했고 그렇게 모여진 성금은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월동용품으로 나뉘어 졌고 또 평소 주민자치위 이장단 등이 눈여겨보았던 곤궁한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지원 되기도 했다.

연산면의 아주 특별한 불우이웃돕기 맟춤 형 행사를 전폭 지원한 도기정 전 주민자치위원장 정규태 이장단장 등은 말 그대로 어려운 이웃을 보듬자는 환난상휼 [患難相恤]day운영 취지도 100점이지만 그에 공감해 행사 준비용 농산물을 아낌없이 지원해준 주민들의 속 깊은 정에 크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행사 총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기정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조선예학의 종장인 사계 김장생 선생의 후손인 김명중 팀장이 연산면으로 전근해 온 이후 독거노인을 비롯해 불우한 이웃들을 살피는 손길이 더욱 심후해진 것 같다며 박사 팀장의 아름답고 정스런 이웃살피기 구상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환난상휼day행사는 오는 1월 17일 [목] 낮 연산면 사무소 옆 주민자치위 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논산=김성구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일성신약(주) 신규 채용 재직자

의약품제조과정 3차 양성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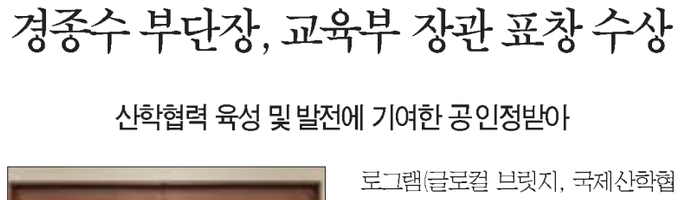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학장 엄준철)는 지난 12일 일성신약(주) 신규 채용된 재직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제조과정 3차 양성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번 의약품제조과정 3차 양성교육은 원료칭량 및 과립화, 타정충진코팅, 기타제형제조, 선별포장, 보관관리, 제품표준서관리, 제조용수관리, 공기조화장치 관리 등 의약품제조에 필요한 전문양성 과정이며 총 120시간 동안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정영환 산학협력단장은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산학협력단의 특화된 현장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및 인프라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기업 실무형 인재로 성장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성신약(주)은 바이오캠퍼스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신규 학습근로자를 위한 1회차 훈련을 진행하였고 올해 3회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 충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향상 위한 업무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안희무)는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14일 오전 11시30분 충남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교육자원 공유 및 협력을 통해 학생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비만사업 및 비만캠프 운영 ▲학생 건강검진사업 협조 ▲1차예방을 위한 금연 · 절주 교육 제공 ▲학생 · 교사 · 학부모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증진 활동 등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건강 실천의지를 높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안희무 본부장은 "지역사회 건강자원과 협력 ·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며 "공단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태안소방서 - 태안군보건의료원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업무협약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11일 태안소방서 2층 서장실에서 태안군보건의료원과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e-triage)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은 IOT 기술을 적용한 대응시스템으로 다수사상자 발생시 기존에 종이 트리아지 대신 전자트리아지로 환자분류를 실시함으로 신속한 환자분류-중증도 LED표시-실시간 환자정보 모니터링 및 구급대원의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주요 업무협약은 ▲이송환자 임상적 추정 진단명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웹에 입력 ▲사상자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협약병원 등으로 환자 이송 ▲의료 관련 자료 공유에 관한 사항 등 소방과 의료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경종수 부단장,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산학협력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 인정받아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 LINC+사업단(단장 윤기용) 경종수 부단장이 산학협력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종수 교수는 선문대학교 LINC+사업단 부단장으로써 대학의 비전인 "산학공생" 실천을 위해 LINC사업의 준비 단계부터 정착까지 조직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산학협력을 체계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글로컬기업지원센터장을 겸직하면서 국제 산학협력 프로그램(글로컬 브릿지, 국제산학협력사무소)를 기획하여 산학협력의 국제화 선도모델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경종수 교수는 산학협력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충청권 4개 대학(선문대, 상명대, 한서대, 한국기술교육대)이 운영하는 글로벌 창의융합전공을 신설하였으며, 창의 프로젝트, 글로벌 창업캠프, 글로벌 현장실습 등 교과과정 개발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오고 있다.

경종수 부단장은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주 · 산 · 학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모든 성과가 지역으로 환류 되어 지역 성장에 이바지 하며,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과기대 장대원 교수

국가자격검정 공로 감사패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효인) 장대원 교수가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국가자격검정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장대원 교수는 미용산업분야에서 종사하게 될 우수한 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술자격검정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협조적인 업무처리와 적극적인 자문 등을 통해 국가기술 자격업무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장대원 교수는 "감사패 수여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후학양성을 위한 지도와 미용인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며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정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대전시립박물관의 새얼굴 도슨트를 찾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이 오는 31일까지 2019년 대전시립박물관 전시해설 도슨트(자원봉사자) 지원자를 모집한다.

도슨트(Docent)는 관람객에게 박물관의 전시에 대해 설명해주는 해설사로 관람객 입장에서는 박물관에서 가장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의 얼굴이다.

도슨트 지원은 박물관에 애정이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된 도슨트 교육생은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5회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석률과 전시 해설 실전 평가를 통해 50명 내외의 인원이 선발될 예정이다.

선발된 도슨트는 시립박물관, 선사박물관, 근현대사전시관 3개관에 배치돼 2019년 4월 2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매주 1회(회당 3시간)씩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도슨트에게는 대전시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며, 박물관 특별전시 개막 시 미리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프리오픈(Pre-open) 및 해설을 위한 전문 강의도 제공된다.

대전시립박물관 도슨트 활동을 위한 신청은 대전시립박물관 홈페이지(http://chejeon.go.kr/his/index.do)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haeyoungkim@korea.kr)이나 팩스(042-270-8633)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선기자

칼 럼

한·중 새로운 지평을 열자

이 창 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개 한국인들은 중국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한 번쯤 삼국지를 읽었기에 유비나 관우까지 거론하며 중국에 친근감을 표시하곤 한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30여 년 가까이 매년 수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양국 간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점도 이런 정서의 배경이다. 더구나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장차 한반도 통일이 되면 국경선 가운데 90%를 마주해야 할 나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다수 사람들은 답변을 주저한다. 역사해석을 둘러싼 마찰 등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이다. 싫든 좋든 중국은 시일이 흐를수록 한반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외교관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는 만큼 알게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양문화와 문명은 동양인에게 항상 새롭다. 경험하는 그 자체로 새로운 배움이 된다. 하지만 동일한 동양문화권인 중국에서는 '나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게 된다. 스스로 묻고, 발견하지 않으면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없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써서 얻어내는 건 그리 많지 않다. 북미, 유럽, 인도,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지역은 남미와 아프리카 정도다. 이곳은 중국과 영토 분쟁이 없고 인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

중국은 경제가 강하고, 많은 사람들은 중국 전통문화에 대개 감탄한다.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지닌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소프트파워를 얻는 원천은 주로 세 가지. 첫째, 호소력이 있는 분야의 문화. 둘째, 국내외에서 잘 지켜지는 정치적 가치. 셋째, 합당해 보이고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정책이다.

중국몽(中國夢)을 품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한반도의 지경학적(地經學的) 가치를 발견하고 북한과 함께 평화정착을 바라고 있으며, 동북아 안정은 중국의 핵심정책과 들어맞기 때문이다. 특히 극단적 선택보다는 중용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에서 볼 때,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모델을 지향하고 싶을 것이다.

최근 시 주석이 "개혁의 길은 이제까지 평탄한 적이 없었다(改革之路 從無坦途)"고 말했듯, 세상의 모든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수동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존중하며 협력·공생하는 평화 지향의 대국' 프로세스를 바라고 있다.

지금 중국은 자신들의 잣대로 세계를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화평 굴기(和平 崛起)'를 넘어, 휘황찬란한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는다. 시 주석은 장징궈(蔣經國) 전 대만 총통의 좌우명을 거론하면서 '이익을 꾀하려면 마땅히 천하의 이익을 꾀하라(計利當計天下利)'라고 하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문화적 교류네트워크 및 인문학적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국의 잠재력 극대화는 운명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중 친선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평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중국이 덩샤오핑(鄧小平)의 호각소리를 시작으로 개혁개방의 길을 달려온 지가 40년이 된 지금,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은 실로 눈부실 정도다.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학술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발간한 '개혁개방 40년' 연구논문집 상권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무려 9.59%. 성장으로 세계기록을 세웠으며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의 2~3배나 됐다. 중국은 이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발전에서도 초일류 단계에 들어섰다.

건강 칼럼

전염력 없는 잠복결핵, 치료해야 하나요?

박 지 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 1위로 경제 수준에 비해 여전히 결핵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는 불안한 소식 중 하나가 잠복결핵이다. 특히 의료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육기관 교사 등의 '잠복결핵 양성 판정' 뉴스는 파급효과가 크다. 전염력과 증상이 없다고 알려진 잠복결핵의 치료가 왜 중요한지 알아본다.

▲결핵 환자와 밀접 접촉한 정상인, 50~60%는 잠복결핵으로

결핵 감염은 폐결핵 환자에게서 나온 결핵균을 포함한 비말핵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간 후 면역계에 의해 제거되지 못하면서 일어난다. 숙주의 면역력과 결핵균의 병원력에 따라 일부는 활동성 결핵이 발병하게 되고, 다수는 잠복 결핵 형태로 감염이 일어난다. 잠복결핵이란 결핵에 감염돼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증상이 없고, 방사선 사진이나 신체에 나타나는 병소도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돼 당연히 전염력도 없는 상태다.

전염성 결핵 환자와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접촉한 밀접 접촉자의 경우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성인에서 50~60% 정도는 잠복결핵으로, 약 5% 정도는 활동성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잠복결핵 감염 환자의 5% 정도는 첫 2년 내에 활동성 결핵이 발병할 수 있고, 이후 5% 정도 평생에 걸쳐 활동성 결핵이 발병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어리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활동성 결핵 발병의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결핵을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의료계, 학계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결핵을 줄이기 위해서는 활동성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결핵의 전파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활동성 결핵과 접촉한 대상자를 조사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며, 감염이 확인된 대상자들에게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효과적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는 치료 대상자가 잠복결핵 감염 환자다.

잠복결핵 감염 검사는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아 잠복결핵의 치료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의 고위험군(HIV 감염인, 장기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거나 복용 예정인 자, TNF 길항제 사용자, 최근 2년 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등)과 결핵균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인, 결핵 발병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효과가 큰 경우(의료인, 산후조리원, 유치원 교사, 집단 시설 거주자 등)가 잠복결핵 검사 대상자가 된다.

검사 방법으로는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TST)와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IGRA)가 있다. TST 검사는 결핵균의 배양액을 단백 침전시켜 분리한 물질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의 피부의 피내 주입 후 2~3일 후 부풀어 오른 팽진을 재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는 채혈을 해 결핵 항원에 반응해 분비되는 인터페론의 양을 측정해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두 검사는 대상자의 면역 상태나 나이, 결핵 백신 접종의 영향 유무 등에 따라 단독 또는 상호 보완적으로 진단에 사용하게 된다.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되면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발병시 파급효과가 큰 대상자 등의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게 된다. 결핵 치료제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약제를 병합해 치료한다. 대상자의 간질환 상태나 나이, 치료 지속 가능 기간, 접촉한 균의 약제 감수성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약제를 결정한다. 약제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간 약물을 복용한다. 예방적 약물 복용으로 활동성 결핵 발병 확률을 의미 있게 낮추려면 약물 복용을 끝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 복용시 간독성이나 과민 반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면담과 혈액검사를 통해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현재 결핵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잠복 결핵 치료시 발생하는 진료비와 검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활동성 결핵 발병시 증상에 의한 고통, 장기 손상, 다수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개인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타인에게로의 전염의 문제 등 감당해야 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다. 따라서 잠복결핵 감염시 예방적 약물 복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다.

중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월 최대 보상금액과 참여대상자 확대

대전 중구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의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부착과 배부가 용이해 무분별하게 배포되면서 도시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중구는 지난해 8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왔다. 이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떼서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5개월간 실시한 결과 현수막 3,100여건 등 총 57,000건 이상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수거됐고 43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됐다.

이와 같은 결과에 힘입어 중구는 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보상금도 기존 월 최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구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명예주민감시관과 지역소재 단체는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을 하게 된다. 크기에 따라 현수막은 500원과 1천원, 벽보와 전단은 1장당 30원, 20원을 지급한다.

월 최대 지급액은 개인은 20만원, 단체는 30만원이다. 참여자의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월까지는 안전과 사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활동은 2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구에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민이 참여하며,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화되는 효과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하고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깨끗한 도시는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만큼, 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요망.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설

체육계 성폭력, 뿌리 뽑을 근본대책 필요하다

체육계가 새해 벽두부터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 큰 혼란에 쌓여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체육계의 암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물론 체육계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유야무야하게 대처함으로써 결국 체육계의 민낯이 또 다시 여실하게 드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번 쇼트트랙 금메달 출신인 심석희 선수에 의하여 고소된 조재범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참으로 부끄러운 체육계의 실상이다. 어린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감독과 코치가 선수의 금메달 꿈을 구실로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지난해 대한체육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무려 성폭력 피해가 136건으로 집계됐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참담한 체육계의 실상인가.

이는 단순히 빙상계에 해당된 것만도 아니다. 볼링, 테니스 등 다른 운동 분야에도 나타났다. 도제식 훈련을 하는 체육계의 폐쇄성 구조는 선수가 지도자의 요구를 거절하면 선수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해도 실상이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체육계의 관행 때문에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예로 2016년 2월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A씨의 경우, 영구제명이 아닌 자격정지 3년으로 징계가 낮춰졌고, 또한 일부 지도자는 다시 복구, 선수들의 훈련을 담당하거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클린스포츠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는 단 1건에 그쳤다. 또한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성폭력 제보를 묵살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요구만 하고 추가 조치는 없었으니, 오히려 선수들이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침묵을 강요당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더 이상 체육계에 성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체육계에 대한 성폭력 전수조사를 하고 해당자는 영구제명을 하겠다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검찰 등 관계 기관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체육계도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체 처벌을 일벌백계 식으로 강화해야 된다.

문체부와 교육부도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체육계의 성폭력 피해를 밝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말로만 아닌 실행으로 보여주어야 된다.

특히 체육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수반되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을 영구히 뿌리 뽑아야 한다.

파견·용역 비정규직 '총 71명' 정규직 전환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안희무)는 14일 오후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규직 전환 직원 및 노동조합 대표 등 지역본부 전 직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알리고 전환 근로자와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말 5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1월1일부로 시설관리·경비 등 용역근로자 44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 했으며 그중 대전지역본부 소속 전환자는 71명이다.

안희무 본부장은 "공단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한편, 배려와 존중이 있고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일터가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다문화 및 18세미만 아동·청소년 대덕구 비래동, 322세대 전수조사

대덕구 비래동(동장 육명렬)이 다문화 및 초중고 교육비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1일 동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다문화 가정 및 초중고교육비 지원대상 322가구를 기준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76일간 이뤄진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주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복지통장을 활용해 1차 사전조사가 진행된 후 중점관리대상가구에 한해 맞춤형복지팀과 보라미 등 민관이 협력해 가정방문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11일 비래동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복지통장 30명과 맞춤형 복지팀, 보라미가 모여 회의를 열고 아동권리신장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펼쳤다.

육명렬 비래동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 현 정	회 장	김 성 구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산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DT 대전투데이 연중 환경 캠페인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 온난화' 지금 멈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내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후 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 주식회사 대생리클린 Environment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 대전광역시교육청